

농촌 재능나눔 이야기 재능 나눔

2013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2013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촌 재능나눔 이야기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체가 보유한 재능을
농촌에 기부한 다양한 체험을 소재로
글솜씨를 겨뤄 입상한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2013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촌 재능나눔 이야기

농촌 재능나눔 이야기 재능 나눔

2013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촌 재능나눔 이야기

발행일 | 2013. 11

발행 | 농림축산식품부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화 | 스마일재능뱅크 1577-7820

디자인 | 영컴(YOUNG COM)

본 책에 실린 내용은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농촌 재능나눔 이야기

2013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Contents



⊕ 개인부문

- 대상** 008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박영옥
- 최우수상** 015 열정 하나로
김형민
- 우수상** 021 꿈을 꾸고 그리는 장애인 친구들과 나, 우리
정재근
- 026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정선명
- 034 소통, 그 아름다운 나눔
장정인
- 장려상** 040 그림 속의 심장이 할머니의 심장을 뛰게 한다면
손수운
- 047 다 함께 덩실덩실, 더 가까이 열쑈!
정철호
- 052 7가지 색깔 아이들
박제희
- 057 학상리, 사진의 매력에 빠지다
이지호
- 063 고남에서 아우름을 느끼다
성시현



⊕ 단체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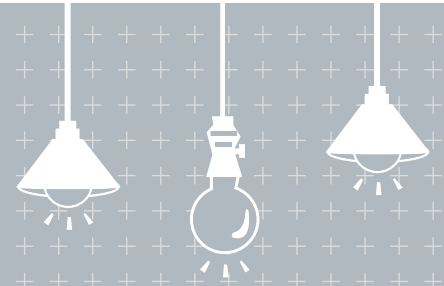
- 대상** 072 소외된 90% 농민을 위한 반자동 모종기
KAIST I&TM
- 최우수상** 080 대학생 멘토와 양구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아름다운배움
- 우수상** 087 희망 불어넣기 소울메이트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봉사단
- 094 하품리로 떠난 스마트재능링크
중앙대학교 대학원 카우링크
- 099 너와 나의 꿈을 향한 ING
네오NEO (경희대학교 동아리)
- 장려상** 104 농촌 어린이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아동인형극단 동화나무
- 109 농어촌 재능기부는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걸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재능본부추진단
- 115 황새, 비상을 꿈꾸다
Team Khurazy
- 121 반딧불마을 어르신들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KT IT 서포터즈 경기북부팀
- 128 나는 수의사의 길을 가고 싶다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 심사개요

- 134 심사후기
137 심사위원 소개

- **부록** 140 농촌 재능기부 소개

2013 농촌 재능나눔 수기 공모전 발간사



힐링(healing)은 재능나눔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현상을 “마더테레사 효과(Mother Teresa Effect)”라고 합니다. 1998년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봉사 활동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실험했는데, 테레사 수녀처럼 봉사를 하거나 그런 봉사활동을 지켜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붙여진 것입니다.

또한, 남을 돕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대학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10년 동안 노인 423쌍을 조사했는데, 일반적인 사망률을 '1'로 봤을 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0.4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재능기부자들은 재능나눔을 통해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어떤 때에는 자신이 치유(healing) 되었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받은 박영옥 씨도 재능나눔을 통해 자신이 치유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 왔던 박영옥씨는 재능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박영옥씨는 우연히 경락마사지를 배우면서 시작한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금은 가족과의 관계도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삶이 우울하거나 권태기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삶이 바뀌고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하는 재능기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농촌 재능나눔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농촌 재능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캠페인은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를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기업, 단체, 개인과 농촌 마을이 재능을 나눔으로써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범국민적 실천 운동입니다. 동 캠페인을 통해 금년 10월 말까지 1,326개 마을에서 다양한 재능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마을환경이 개선되고 농촌의 활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은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 기업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해인 2011년에는 80점이 출품되었으나, 지난해에는 135점, 올해는 141점이 출품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수상작 20점 중에 대학생들 작품이 9점이나 됩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단순한 일손돕기 차원의 농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 끼를 살려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3만 6천여 개 농촌 마을에서 보다 많은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재능나눔 활동이 이루어져서, 농촌 공동체가 활력을 찾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과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동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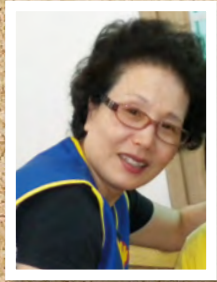
Individual Awards



☐ 개인부문

- 대상** 008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박영옥
- 최우수상** 015 열정 하나로
김형민
- 우수상** 021 꿈을 꾸고 그리는 장애인 친구들과 나, 우리
정재근
- 026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정선명
- 034 소통, 그 아름다운 나눔
장정인
- 장려상** 040 그림 속의 심장이 할머니의 심장을 뛰게 한다면
손수윤
- 047 다 함께 덩실덩실, 더 가까이 열쑈!
정철호
- 052 7가지 색깔 아이들
박제희
- 057 학상리, 사진의 매력에 빠지다
이지호
- 063 고남에서 아우름을 느끼다
성시현





개인부문 대상 - 박영옥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얼마 전에 성형중독 환자인 선풍기 아줌마 시리즈를 보면서, '세상에 예전의 사진을 보니 미인인데 얼마나 더 예뻐지고 싶으면 식용유를 얼굴에 주입을 했을까?' 예뻐지기는커녕 얼굴이 풍선만 하게 불어나 괴물이 된 모습으로, 몇 차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다시 성형수술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무리 다시 성형수술을 해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극의 가수를 보면서 서글퍼 보이고 우울했다.

하지만 여자라면 누구나 다른 여자보다 더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데는 공감한다. 더욱이 여자는 100세가 되어도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는가? 나 역시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귀막을 다치고 폐경기가 오면서 소외감에 우울증이 와서 만사가 다 귀찮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지척에 사시는 시어머니도 몰라라 하며 돌보지 않는 못된 며느리가 되었다.

매일 아침이면 거울을 보고 또 보면서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할멈처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혼자 중얼중얼하며 화장도 하고 머리를 빗었다. 남편은 내가 걱정이 되었는지 무엇이라도 배워 보라고 권유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미용기술도 배웠지만 재미가 없었다.



재능기부가 뭔지도 모르는 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재정도 맡아 운영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봉사가 어디 있어?’ 하면서 자아도취도 해보았지만, 만족감도 없고 하루가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더 우울하기만 했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등 따습고 배가 불러 행복해서 오는 우울증이라고 비웃었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 자꾸만 밖에서보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주00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독거노인 잔치에 봉사자들과 발마사지 봉사를 하러 온 것을 보게 되었다. 주00 회장님의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마사지 한번 배워 볼까?’ 하는 호기심에 여성복지 경력마사지반에 등록하게 되었다.

수업 중에 주00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 “손에 오장육부의 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마사지를 해줄 때 약손이 되어 나도 다른 사람도 치료가 됩니다.” 라는 말에 공



감이 가서 주회장님을 따라 정신요양원에 갔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 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예구, 세상에 어쩌나 다시 가야 하나? 잘못 왔구나.’ 하고 후회를 했다. 시커먼 남자들 발이 가뭍에 논바닥 갈라지듯 짝짝 갈라져 있고, 각질과 무좀으로 발톱은 썩어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크레도¹⁾로 긁어내고 손톱깎이로 깎는 주회장님 모습에 구토가 났다. 그래서 황급히 돌아서 나오려는 순간 웬지 뒤통수가 따갑게 느껴지고 양심에 걸려서 올 수가 없어 ‘울며 겨사 먹기’, ‘역지춘향’으로 발마사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금요일만 되면 울렁증이 가라앉고 나이는 40대인데 행동은 10살 밖에 안 되는 환우들이 보고 싶어지고, 그들을 만지는 내 손이 그들에게 치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까지 생긴 것이다. 그 후로 내가 언제 우울증이 왔었는지 모를 정도로 명랑해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졌다.

봉사를 다녀오면 남편에게 “여보, 나를 기다리고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싱글벙글하면 “당신, 봉사하면서 많이 변했어. 너무 보기 좋아. 그리고 너무 예뻐!” 라고 칭찬까지 받았다. 나는 정신요양원뿐만 아니라 중추장애인들에게,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생활하신 노인들에게 발마사지를 해드리면서, 그 동안 내 모습에 갇혀 90이 넘는 노인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시어머니를 방관하고 외면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1) 크레도 : 각질 제거기

“나는 여기서 받을 거야.” 서로 밀고 싸우며 맘에 드는 봉사자에게 발마사지를 받으려고 치매 노인들이 자리다툼을 한다.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나한테 발마사지 받으시려고 누우신 어르신이 실례를 하셨다. “할머니, 목욕 하러 가십시다.” 황급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모시고 가려고 일으키시는데 “나는 싫어, 여기서 발마사지 받을 거야.” 요에는 오줌 지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자리 빼앗길까 봐 꼼짝도 않고 일어나시지 않았다. “할머니, 얼른 목욕하고 오시면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라고 달려서 내가 손을 잡고 목욕탕까지 안내를 했다.

우리 시어머니보다 젊으신 치매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90 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생각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노인이신데 따뜻한 밥이라도 내 손으로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봉사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여보, 어머니를 우리집으로 모시고 옵시다. 연세 많은 어머니께서 식사하시기도 힘드실 테니 말예요.” 내 제안에 남편은 눈이 둥그레져서 “그럼 나야 고맙지. 여보, 고마워!”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다.

그 다음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를 우리집으로 모시고 오는데, 하얗게 세신 머리 탓인지 어머니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다. “어머니, 제가 내일 커트 해드리고 머리 염색해 드릴까요?” “그래 네가 해주면 해야지.” 어머니께서 흔쾌히 허락



하셔서 머리를 예쁘게 잘라 드리고, 염색약으로 까맣게 염색을 해드렸다. “어머니, 거울 좀 보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호호호, 그야 내가 예쁘지!” 평소에는 그렇게 말 한마디도 잘 안 하

시던 어머니께서 내 말에 장난기 섞인 대답을 하셔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젊어서도 같이 못 살았던 시어머니나 나나 서로 어색하고 부담되었지만, 점차적으로 같이 나이 먹어가는 노인이라는 공통점에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갔고, 매달 시어머니 커트도 염색도 해드리며 같이 살아가는 내 생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주회장님 덕에 재능기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역시 내가 밖에서 재능기부 활동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더 늙기 전에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셔서 재능기부 활동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사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도서벽지 지역인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에 농어촌 재능기부를 갈 때는 휴가일을 모아 휴가를 가지 않고, 외롭고 힘들게 사시는 또 다른 부모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프셔서 거동을 못하고 누워계시는 집을 찾아가 미용 재능기부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재능기부를 할 때마다 ‘그냥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배웠던 미용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내 재능이 될 줄이야...’ 신기하고 행복하다. 처음 미용 재능기부를 할 때 ‘내가 해드린 커트가 어르신들의 맘에 안들면 어찌나?’ 하는 걱정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을 억누르며 가위질을 했다. 다 끝난 뒤에 “할머니, 머리 어떠세요?” “예고, 미용사보다 더 예쁘게 잘랐어. 고마워! 고마워!” 하면서 몇 번이고 내 손을 잡고 고마워하는 노인들의 감사에 자신감도 생기고 보람도 느낀다.

그 다음부터는 노인들에게 커트와 염색을 해드리고 나면 꼭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어 보게 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내가 제일 예쁘다.” 라고 자동으로 답하시며 박장대소를 하시며 좋아하신다.



나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나서야 노인들의 특성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재능기부로 노약자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나의 일까지 하는 당연한 사회인이 된 것이다. 덤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90이

넘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주위 분들에게 ‘효부’라고 칭이 마르도록 칭찬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이렇게 강화군의 구석구석에서 아프고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에게 미용 재능기부로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신시켜드리고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멋진 재능기부 봉사자로 변신하게 이끌어주신 주00 회장님께 감사하다.

재능기부 활동을 안 했더라면 내 나이 60에 이런 행복한 제 2의 황금기를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혹 나처럼 삶이 우울하거나 인생의 권태기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나처럼 재능기부 활동을 해보세요. 그럼 인생의 삶이 바뀌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권하고 싶다.



개인부문 최우수상 - 김형민

열정 하나로





군 전역 후 일 주일... 군 생활 동안 켜켜이 쌓아 놓았던 분출되지 못한 도전정신, 열정, 의지 등을 꺾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계획해 놓았던 무전여행, 해외배낭여행, 자전거일주 등은 현실의 벽 앞에 무참히 무너져가고, 무기력해

진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걸려온 전화, “야, 형민아 ~ 22\$%&^\$#@ 재능기부, #&\$*)@%\$24 태안여행, 봉사하러 가지 않을래?” 사실 그 당시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이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그래, 하자!” 라고 소리쳤다는 것 밖에는...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며칠 후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밝혀진 진상. 폴라리스TV¹⁾라는 채널에서 끼 많은 대학생들을 주제로 ‘청춘유랑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재능기부를 주관점으로 하여 도움이 필요한 마을에 도움을 주러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랴부랴 군대에서 갓 전역한 대학교 동기 네 명으로 급조된 팀을 만든 저희는 ‘열정 하 나로’ 뭉쳐 에어로빅 안무를 연습하고 연구하였고, 결국 에어로빅 전국대회 수상 팀이었던 라이벌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태안 만대마을’에 에어로빅과 마사지를 재능

기부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촬영 일정은 1박 2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날 체육관에서 반복되는 촬영과 수많은 에어로빅 연습, 한밤중에 태안으로 이동하는 일정 때문에 차 안에서 토막잠

을 자는 등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만만치 않은 촬영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1일차는 과거 기름유출이 발생하여 기름범벅으로 오염되었던 바다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만대마을뿐 아니라 태안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주 일거리인 갯벌에서의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드는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통해 이동하면서 또 직접 걸어 다니며 풍경을 보니 고등학생 때 태안기름제거 봉사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며, 과거 기름유출로 오염되었던 곳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로 원상복구가 된 듯해 보였습니다. 또 과거 많은 봉사자들이 이동했던 산길은 멋진 산책길로 탈바꿈되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산이나 해안가 쪽에 피서객들의 모습이 동해나 남해에 비해 소규모인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갯벌 체험에서는 더욱 더 많은 것을 느꼈는데, 무엇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을 보며 흔히 말하는 ‘시골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허리와 무릎 쪽이 아픈 정도가 가장 심하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주 병원을 찾아 진통제를 맞고 있으며, 진통제 없이는 생활이 힘들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디가 제일 편찮으신지 또 그에 맞게 어떤 운동이, 어떤 동작이 좋을지 생각해보기로 한 첫날밤이었지만, 심각함에 머리가 너무 무거워져 분위기마저 무거워졌고, 머리로 안 되면 몸으로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늦게까지 연



1) 폴라리스TV : 2005년 5월 1일에 개국한 여행 전문 케이블TV

습에 매진하게 되어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2일 차 아침은 다가왔고 더운 날씨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온 뜻 깊은 자리인 만큼 부담감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동적인 움직임을 주로 하는 만큼 에어로빅으로 과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

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욱 컸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 스탠바이 사인이 났습니다. 마을회관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다섯 걸음에 불과했지만, 마치 42.195km 마라톤의 첫 발을 뗀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창하듯 크게 인사한 뒤 마련된 장소로 자리를 옮겨 어색함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은 손자들이 재롱부리는 걸 보듯이 즐거운 모습으로 지켜봐 주셨고, 폭발적인 반응 속에 저희는 동작을 맞게 하였는지 인식조차 못한 채 에어로빅 시범에 열정을 담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스트레칭을 선두로 본격적인 행사는 시작되었고, 이쪽저쪽 이리저리 흔들고 찌르고, 비록 다른 사람이 보면 이곳이 에어로빅 교실인지 트로트 댄스 교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없는 현상이었지만, 오히려 저희는 어르신들과 허물없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더 없이 뿌듯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열추 시간이 흘러 많이 지치신 기색이 느껴지자 다시 자리를 옮겨 안마와 마사지를 해드리며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실시한 열정 넘친 에어로빅 교육은, 첫 만남의 어색함을 훌훌 날려버리고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만남처럼 기분을 띄워주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자 얘기, 점심밥 얘기와 같은 사소한 이야기에든 누가 제일 예쁘냐는 애꿎은 질문에도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해 주셨고, 남은 1시간마저도 웃음꽃이 만개하는 만남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



짐이 있다는 말처럼 이별의 순간은 다가왔고, 보내고 싶지 않은 어르신들과 떠나고 싶지 않은 저희였지만, 다음에 또 오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을, 앞으로 저희가 없더라도 오늘처럼 자주 마을회관에 모여서 노래를 틀어놓고 이리저리 흔들며 찌르고 하시라고 항상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꼭 하시라고 당부 드리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을회관을 나섰습니다.

시작과 반대로 42.195km 마라톤이 끝난 것이나 진배없는데 왜 이리도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지... 특히나 인사하고 나오면서 본 어르신의 웃음 뒤에 감춰진 안타까움과 몸으로 느껴지는 외로운 감정들, 또 머릿속에 그려지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얼굴과 다 끝났다, 해냈다는 보람찬 마음이 섞여 기분이 참으로 먹먹하였습니다. 과거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곳저곳에 가서 쓰레기 줍기, 도서관 책 정리 심지어 가짜 봉사 활동증까지 발급받던 저였는데, 하늘은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했다는 것을 싱송송한 감정으로 어렵게 알려주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군 전역 후, 아니 인생을 살면서 처음 접해본 이 뿌듯한 재능기부 활동이 제 인생의 큰 의미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마을회관을 나와 집까지 걸어가는 순간에는 아쉬움에, 또 2일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일정에 의한 피곤함에 께죄죄한 물골이 되어 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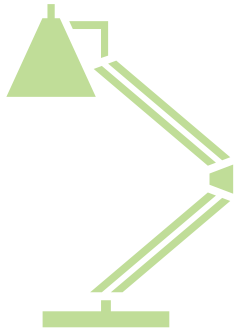
만 그래도, 그래도 정말 기뻐합니다.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 집에 와 찾아보았더니 마침 딱 맞는 수기 공모전이 있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을 시작으로 이전처럼 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기력해지거나 내 변명 속에 숨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열정 하나로' 말입니다.



개인부문 우수상 - 정재근

꿈을 꾸고 그리는 장애인 친구들과 나, 우리





귀농한 지 11년째. 그러나 직접 딸기 농장을 운영하여 작물을 키우고 농촌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겨우 6년 정도가 되었다. 1997년의 경제 위기의 여파가 유명 화랑의 관장이었던 나에게 큰 상처와 경제적 좌절을 남기면서, 도망치듯이 고향에 숨어들어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았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무서워서 방 속에 틀어박혀 살다 보니, 건강도 악화되어 도저히 살 고자 하는 희망이 없었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 그

렇게 허송세월하고 나니, 불현듯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졌고 무작정 동네 어귀에 나가 마을 청소를 시작했다. 3년 동안 날씨와 무관하게 마을 곳곳을 쓸고, 농업 교육 과정을 찾아다니며 이수하였다. 그제야 나는 한 사람으로서, 농부로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낭떠러지에서 피투성이 손으로 절벽을 기어코 올라온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지만, 무엇보다 가장 고마웠던 것은 나를 가엾게 여기며 자발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호의였다. 그때 나는 내가 누렸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것이 장애인 미술 교육과 양로원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사실 미술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선 큰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내가 화랑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장애인들을 가르칠만한 선생님으로서의 자격과 경험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짧은 고민 끝에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장성군에 위치한 전라남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선생님들의 호응으로,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 아주 기본적인 색칠 공부부터 시작했다. 색의 배열과 조합, 직선과 곡선의 조화, 도형을 그리는 법 등 아주 간단한 지식으로 시작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장성군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수업을 했지만, 이후 내가 운영하고 있는 딸기 농장 옆에 컨테이너를 들여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을 불러 그림을 가르쳤다.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나는 새로운 꿈을 장애인 친구들에게 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 한 동을 장애인 친구들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적으로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것이었다. 평일에는 나와 아내가 하우스를 관리했고, 아이들이 오는 날에는 미술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함께 딸기를 가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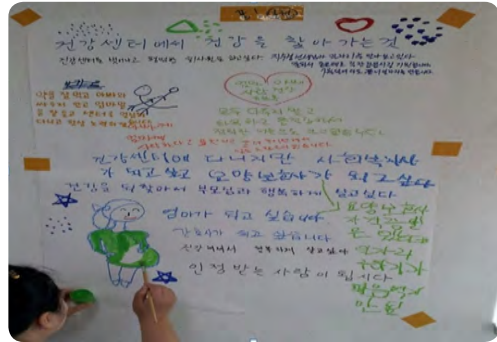
수확 철이 되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복지관 선생님들과 수확한 딸기를 직접 포장하여 장성군의 사회 복지관 앞에 작은 판매대를 열었고, 딸기 장사는 성황리에 끝났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육체적 노동과 인내를 결실로 맺어 스스로 직접 번 돈이었다. 나중에 복지관 선생님으로부터 장애인 친구 중 한 명이 판매 수익금으로 동생의 교복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동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2012년 가을에 열렸던 장성군 백양사 애기단풍 축제에서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그렸던 작품들을 가지고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어 그림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위 사진은 전시회 당시 찍었던 사진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직접 찍어 올린 것이다. 미술 교육을 통한 나의 재능기부는 조금 더 확대되어, 현재 장성군의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보건소의 정신자활센터에서도 주 1회씩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정신자활센터에서의 일화를 소개하자면, 장애인 친구들의 달혀 있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주제로 했던 수업이 있었다. 교실 벽면에 커다란 도화지를 붙이고, 24명의 친구들이 한 사람씩 그림과 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남편을 커다랗게 그린 친구, 50,000원짜리 지폐를 그려 넣고 '어머니 옷 한 벌 사드리고 싶다'고 적은 친구, 알약을 그린 후 '약 먹기 싫다'고 쓴 친구 등 24명이 꺼내놓은 애달프고 보드라운 속내들을 보며 나와 장애인 친구들이 참 많이 울며 서로를 다독였던 시간이었다.



건강 센터 친구들의 소망을 써 보는 수업에선 한 장애인 친구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적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다. 이 친구를 보면서, 장애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어도 실현시킬 수 있는 요건들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다. 하루를 살고, 내일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들이 좀 더 확충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신설됐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보다 넓은 시야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재능기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느꼈던 것은 내가 가진 미천한 재주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많은 상처와 눈물들을 치유해 나가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 이 한 몸 쉬게 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장애인 친구들을 떠올린다. 화랑을 운영하면서 내 잔재주를 뽐냈던 그 시절도 좋았지만, 지금처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지금의 시간들이 참 값지게 느껴진다. 산다는 건 그런 것 같다. 기대어 사는 것.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서로를 향해 바라보며 웃는 것. 그런 게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는다. 지금 나는 참 행복하다.





개인부문 우수상 - 정선명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우리학교 건축학부에서는 매년 여름방학 때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 활동을 가고 있다. 나는 작년 의성에 봉사를 간 경험자 자격으로 이번 울릉도 집 고쳐주기 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에도 지붕 조였는데 이번에도 우연히 지붕 조를 하게 되었다. 우선 집을 측량해온 선발대 봉사 단원에게 도면을 받아서 지붕 자재의 산출과 공사 계획을 세워봤다. 울릉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건축자재나 식자재를 쉽게 조달할 수 없어서 계획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컸다. 그래서 비록 짧은 10일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만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계획기간이 끝나고 이제 울릉도로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파도가 너무 심해서 사람은 태워줄 수 있지만 자재를 싣은 트럭은 배에 못 태워준다는 것이었다. 계속 설득해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만 먼저 가는 것으로 하고 우선 출발했다. 배 타기 직전만 해도 신나게 떠들던 우리들은 타기 전에 먹은 멀미약 때문인지 배를 탄 후에는 모두 잠이 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니 울릉도에 도착했다. 처음 만난 울릉도의 바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물도 깨끗하지만 울릉도의 산들이 너무나도 예뻐다. 그렇게 경치 감상도 잠시 우리는 바로 출발해야 했다. 울릉도 항구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마을까지 또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했기 때문이다. 잠시 뒤 항구를 벗어나면 서부턴 산길의 연속이었다. 울릉도의 모든 길은 산을 타고 가는 길인 것 같았다. 산을 돌다가 다시 돌고 계속 돌았다. 그래도 좋았던 건 어느 길에서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경치감상을 하면서 마을에 도착했다. 이미 시간은 3시가 넘어있었다. 우리는 마을회관을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숙소를 청소하고 짐을 정리했다. 그리고 집을 고쳐 드려야 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돌아

다녔다. 어른들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다. 우리의 첫날은 그렇게 봉사를 하기 위한 준비와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배에서 많이 잤지만 다시 피곤해졌는지 금방 잠이 들었다. 첫날의 어색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밤이었다.

다음날 6시, 기상시간이 되었다. 원래 같으면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자재를 싣은 트럭이 같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트럭을 기다려야만 했다. 중간에 ‘오늘도 못 올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교수님과 우리는 걱정이 가득해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재트럭은 오후 1시쯤 무사히 도착했다.

이제 각자의 자재와 공구를 가지고 집을 방문했다. 우리는 지붕 조였지만 바닷가 쪽 벽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도 같이 맡고 있었다. 지붕자재는 지붕 회사에서 3일째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타일작업을 먼저 시작했다. 우리 조가 맡은 집은 규모가 큰 집이었는데, 칸을 나누어 안에 3가구가 살고 있었다. 첫 번째 집 할머니는 우리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두 번째 집에 살고 계신 아저씨는 집에서 나오시질 않았다. 세 번째 집 할머니는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반가워하시는 듯하였다.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누어 일했다. 몇 명은 타일을 나르고, 몇 명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벽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했다. 뒤늦은 자재도착으로 1시 쯤부터 작업을 시작하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 타일의 경우는 벽에 붙은 먼지나 벗겨진 페인트를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날 아침 6시 기상시간이다. 6시 기상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다들 피곤해 보였지만,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고 나니 금세 피곤이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는 잠을 깨고 작업을 시작했다. 오늘부터는 타일을 본격적으로 붙이고 집의 뒤편에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그렇게 일하다가 10시쯤 되었을까, 우리를 봐도 별말씀이 없으시던 세 번째 집 할머니께서 고생들 하는데 ‘참’ 먹고 하라면서 갑자기 국수를 준비해 주셨다.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서 그런지 맛이 정말 깔끔하고 좋았다. 할머니께서 어찌나 국수를 많이 해주셨는지 우리는 엄청 배부르게 국수를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참을 먹고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는 타일디자인이 별로 맘에 안들었는데 막상 건물에 붙이고 나니 느낌이 괜찮아 보였다. 우리가 한 작업이지만 상당히 만족해하며 스스로 잘했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진정으로 기다린 것은 지붕이었다. 할머니는 “이런 건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지붕은 꼭 해줘요. 학생” 하면서 내 손을 붙잡았다. 나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부터 지붕 새로 덮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다. 지붕 재료가 기상악화로 오늘 역시 배에 못 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아마 내일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지붕이 그렇게 늦게 도착하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었다. 지금까지 다른 작업에 신경 쓰느라 지붕상태를 제대로 안 봤는데 할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붕은 철판으로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비도 새고 있었다.

사실 농촌의 주택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지붕이다. 다른 도배나 장판 심지어 화장실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비가 새는 집은 정말 살기 힘들다. 이미 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붕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런 마음은 가득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오늘은 다른 일에 집중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숙소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오늘 했던 일을 점검하고 잠시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오늘도 지붕 재료가 못 온다는 것이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다니 어떻게 해 볼 방법도 없었다. 일단은 다른 작업이라도 모두 끝내놓기 위해 우리는 어제 하던 타일 붙이는 작업과 집수리를 계속했다. 가장 우리를 반겨주신 첫 번째 집 할머니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아이스크림과 빵을 사다 주셔서 고맙지만, 지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 괜히 미안해졌다. 우리가 “할머니, 저희 잘 먹고 다녀요.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 할머니께서는 “응. 알았어.”하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사다 주셨다. 정이 많으신 할머니 같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결국 6일째가 되어야 지붕재료가 도착했다. 우리는 3일 만에 지붕공사를 끝내야만 했다. 지붕재료를 갖고 오신 직원 분도 전문가가 작업을 해도 3일 안에 끝내기는 힘들다고 하셨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빨리 시작했다. 우선 지붕 구조 틀을 만들기 위해 나무각재를 설치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다 설치된 각재 위에 지붕재료를 덮고 있었다. 지붕 공사를 하루 정도해보니 역시 생각보다 지붕은 빨리 할 수가 없었다. 평평한 곳에서는 금방 할 수 있었지만, 모서리나 지붕과 지붕이 만나는 곳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한 번의 실수가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쁘다고 빨리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오늘 하루에 3분의 1은 완성했어야 했지만, 작업량은 그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어 보였다. 그렇게 초조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우리는 다시 숙소로 들어왔다. ‘어떻게 다 하지?’ 걱정을 하면서도 너무 피곤했는지 바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역시 6시에 일어나서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갔다. 망치질 소리에 아침부터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지만, 시간 내에 완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하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쯤 다시 주위를 봤을 때 아직도 듬성듬성한 지붕이 보이자 정말 가능한 걸까? 하다가 완성 못하고 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속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마음이 약해지니 다리도 아파오고 팔도 아파오고 몸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찰나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지붕 위에서 하는 작업의 특성상 센 비바람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작업은 중단되었다. 시간도 부족한데 날씨가 우리를 괴롭혔다. 다행히도 비는 한 시간 정도 뒤에 그치

게 됐다. 하지만 이미 우리들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기가 죽은 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다른 조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왔다. 작업이 거의 다 끝난 조에서 도와주러 온 것이었다. 갑자기 지붕에 사람이 많아지고 분위기는 한껏 활기차졌다. 일할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도 중요했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했다. 많은 부분을 나누어서 작업을 하니 이제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오늘이 사실상 작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기에 우리는 야간에도 작업을 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와있었지만 야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의 현장으로 몰려왔다. 거의 모든 봉사단원들이 지붕을 끝내기 위해 왔다. 우리는 갖고 있는 모든 조명을 켜고 마지막 모서리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 같이 지붕을 조립해 나갔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쉬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지붕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자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 그렇게 조금씩 여러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새벽 한 시가 되어서 마지막 못을 박을 수 있었다. 마지막 못을 박으면서 우리는 “아, 하면 되긴 되는구나!” 라고 말하며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나눈 채 지붕에서 내려갔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기쁨을 표현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지붕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다녔다. 우리집 앞에는 할머니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싹 바뀐 지붕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셨다. 이제는 집에서 비가 썰 염려 없이 맘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역시 지붕이 완성된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극적으로 완성된 지붕을 보며 먼 이곳에서 봉사를 통해 누군가의 집을, 누군가의 삶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했



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배운 봉사의 시간이었다.





개인부문 우수상 - 장정인

소통, 그 아름다운 나눔



크고 넓은 길, 잘 닦여져 있어 쉽게 건너
거나 뛸 수도 있는 길, 심지어 차를 타고
막 달려도 되는 길에서 난 그만 멈추
었다. 아직 많은 이들이 지나가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잡초가 우거져 있지만,
내가 반반하게 다듬어 나가야만 하는

길, 내 손길이 필요한 길,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이 무성하게 피어있어 어서 오라고
나에게 손짓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고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난 기꺼이 내가 가야 할 또 다
른 길의 멀고 먼 여정에 올랐다. 그곳에서 난,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심
지어 생각도 달라 전혀 소통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과 만났다. 이곳은 내가 꼭 있어
야 할 곳, 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확신, 그것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다.

다문화 여성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지 벌써 만 6년이 되
었다. 처음 1년간은 그야말로 자신만만 그 자체였다. '내가 아는 지식이면 충분할거
야. 난 그래도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8년씩이나 했는데...' 난 준비된 교사라는 나
름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처음엔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와 풍습,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 세계여행을 하는 것처럼 신이 났다.

일 년 남짓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이들을 지도했다고 하지만, 내가 가르친 한국어
가 그들의 뇌리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잘 자리 잡았는지 검증되지 않은 채 각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획일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
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여러 방면의 다양한 배경지식의 전달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습자의 국적과 그 특성에 맞는 개별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내가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국어교사였기 때문에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필요했다.

한국어 교사를 한 지 일 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대학원에 입학한 일이었다. 복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새롭게 시작한 일이 한국어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어 교사 검증시험을 치른 것이다. 물론 내가 가진 국어학적 지식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다문화 가족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비롯한 다방면의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만 했다.

이러한 일들을 한꺼번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단 하나의 목표 때문이었다. 그 목표는 외모도 다르고 각기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어를 제대로 배우겠다는 학구열에 불타는 까만 눈동자를 가진 나의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이유였다. 고3때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문법사항, 이런 표현법은 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만 효율적인 지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정말 입술이 부르트도록 노력하는 시간이었다.

대학부설 한국어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교사를 대표해서 시범수업을 했으며,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과연 '살아있는 한국어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내가 가르친 한국어 교육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의 교육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많은 문법사항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언어습관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과 온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교육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기 다른 모국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한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도록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단순한 주입식의 한글교육보다는 충분히 배움의 자세가 되어있는 나의 제자들에게 원리를 깨우쳐 주는 교육,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균형을 이룬 한글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하는 한국어 선생님, 이러한 나의 노력은 원리를 깨우쳐 가는 교육이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도함으로써 교사인 나도, 배우는 제자들도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제자들 중에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제자들이 참 많다. 모르면 그냥 외우라는 식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설명하고 깨우쳐 가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밤새워 PPT 자료를 만들고, 낱말카드와 문장카드를 만들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그림 자료를 찾아보고, 교실에서 하는 짝 활동



과 역할극을 준비하면서, 나의 수업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열정을 보았다. 보수도 아닌 명예도 아닌 그저 내가 원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국이

너무 가난해 이곳으로 시집와서 대한민국이라는 제2의 조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제자들, 이들과 나 사이에는 국경의 장벽도 문화의 장벽도 피부색깔의 장벽도 다 허물어졌다. 난 그저 그들의 선생님이고, 친구이며, 때로 언니이고, 조금 젊은 친정 엄마일 뿐이다.

2년 전부터 난 다문화 지원센터가 아닌 시골로 직접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천시내에서 꽤 많이 떨어진 곳, 다문화 지원센터에까지 올 수 없어 “선생님, 저희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시내까지 갈 수도 없고 차도 없어요. 선생님 공부하고 싶어요!” 제자들의 애타는 전화 속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내가 꼭 가야만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김천시내에서 차로 40분을 달려야 하는 곳, 지례, 부항, 대덕의 골짜기에 사는 다문화 여성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지례면 사무소에 모인다. 물론 아기들을 업고 걸리고 해서 온다. 수업분위기는 그야말로 장날의 시골 장터 분위기이다. 어떤 아기는 울고 또 어떤 아기는 엄마 젖을 물고자고, 또 어떤 아기는 교실을 수업시간 내내 뛰어다닌다. 선풍기도 한 대 없는 올 여름 폭염에 땀으로 샤워를 해도 배움의 열정만은 잠재울 수 없었다. 한 자, 한 자 깨우쳐 가는 제자들의 눈동자는 그야말로 배움에 목말라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거름냄새 진동하는 도로를 따라 난 이들을 만나러 간

다. ‘배가 불러 예정일이 지난 새댁이 아기를 낳았을까? 농사일이 많이 바빠 몇 번 결석한 새댁은 오늘은 꼭 올까? 열이 나는 아기는 이제 다 나왔을까?’ 궁금함과 걱정과 또 만남의 설렘 속에서 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 이들이 좀 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자리 잡도록 온 힘을 다 하리라. 한국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선생님이로 남고 싶다는 작은 꿈이 나를 늘 가슴 뛰게 한다.

이 한 해가 가기 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간직하기 위해 이곳 한국에서 겪었던 아름다운 일과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서로 정을 나누는 소박한 이야기,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환을 담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모아 문집으로 낼 생각이다. 뼈뿔뿔 서툰 글이지만 내가 썼다는 자부심에 더 가슴 뿌듯해 할 사랑스런 나의 제자들의 활짝 핀 얼굴이 가을 들녘의 코스모스처럼 수줍지만 아름답게 물들 것이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선다.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쓰인 글씨와 함께 소담스러운 꽃다발이 하얀 칠판을 수놓았다. 칠판을 수놓은 이 꽃다발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꽃다발보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 때로 손수 농사지는 금방 따온 나물을 한 아름 안겨주기도 하고, 보라색 고구마가 몸에 좋다며 수줍게 봉지를 내밀기도 하며, 먹음직스러운 단감을 선물해 하루 종일 내가 달콤함을 느끼게도 한다. 그들은 손에 쥘 것이 그리 많지 않지만, 가슴은 너무도 풍족하여 항상 내게 행복을 나누어 준다. 이런 나의 제자들 앞에 더욱 당당하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난 행복하다. 불혹을 훌쩍 넘긴 내 인생길에 사랑스런 나의 제자들은 내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의미이다. 각양각색의 꽃밭에 핀 저마다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에 취한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국어 선생님이다.





개인부문 장려상 - 손수윤

그림 속의 심장이 할머니의 심장을 뛰게 한다면



2012년의 무더운 여름이었다. 전북 장수의 깊은 골짜기로 농활을 왔을 때는, 정말 찌는 듯한 더위에 숨만 쉬고 있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흐르는 8월 말이었다. 너무나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을 가리려고 커다란 장우산을 펼쳐 들고 마을길을 올라간다.

서울에서 젊은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왔다는 소식에 구경을 온 마을 사람들이 뒷마루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에서 가만히 들으니 안타까운 사연이 들려온다. 차분하게 하는 말소리가 무척 인자하고 다정하게 공기를 타고 흘러든다. 나도 모르게 귀를 방문 쪽으로 대고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한다. 경과가 어떠냐고 걱정스럽게 이 집의 주인인 00님이 묻는다. “계속 약을 먹어야 하고 또 무슨 검진을 받아야 하나 봐. 갈수록 통증은 심해지고 병원 다니는 게 일이네. 할 일은 가득한데 몸이 성치 않으니...” 할머니의 집에도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면서 아픈 몸을 주무르신다.

마을의 다른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말한다. “그게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수술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다고 치료가 되겠어요?” 병원에서 잘못했다면 의료사고라는 건데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그분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면서, 막막한 심정이 마루를 넘어서 방안으로 스며 들어온다. 은근슬쩍 차분하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침착하게 얘기하시는 그분의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마루로 나갔다. 인사를 하니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놀러 오라고 하신다. 국화꽃 농사를 지으시는데 차 마시러 오라고 아이처럼 웃으신다. 이렇게 해맑고 소녀 같

으신 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니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달리 말이 나오지도 않고, 문득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받은 잘못된 수술에 대해 그리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걱정을 하다가 헤어졌다.

다음날 초대받은 국화꽃집에 가기로 했다. 국화꽃을 키우고 말려서 차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으로 장도 담그고 여러 가지 음식에 넣어서 만들고 있다고 한다. 못다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집 입구에 작은 돌들이 층층이 쌓여있다. 돌계단도 있고 좌우로 하나씩 모아서 만든 돌들이 웅기종기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국화꽃집 주인답게 예쁜 국화차를 내준다. 원래는 건강하셨는데, 간단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한다. 들어보니 분명한 의료사고인데 병원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어서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소송으로 가면 젊은 의사의 장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면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건강하던 심장이 수술을 받고 나서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서, 지금 상태로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듣고만 있어도 더운 날씨만큼이나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조목조목 따지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원망도 하지 않고 나의 운명이려니 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 의사에게는 원하는 사과를 받지 못하셨지만, 나라도 대신 위로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아픈 몸을 이끌고 정성스럽게 손수 말린 국화차를 내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곳에서의 삶을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모습이 고맙고 따뜻했다. 밖으로 나가 커다란 장독

대에 뭐가 들었냐고 물어보니, 국화꽃물에 담은 된장, 간장이 있다고 한다. 맛을 볼 수 있냐고 하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일일이 장독대 뚜껑을 열고 맛을 보여주신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60년 된 장맛을 봤을 때는 진한 장맛과 더불어 깊은 향에 저절로 감탄사가 우러나왔다. 프랑스에는 와인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맑게 빛나는 간장이 있었던 것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장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래 와서 장을 퍼간다고 한다. 그래서 종이에 퍼가지 말라고 써서 붙여놨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도시의 공장이라면 방범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데, 시골의 오가는 길에 담장도 없이 장독대가 그대로 보이니 생기는 일이다. 장독대 옆의 작은 돌계단에 사람모양의 돌이 눈에 들어온다.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계곡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하나씩 모아서 만들었는데, 정말 사람 같지 않아요?” 돌에 사람얼굴만 그리면 그대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내 생각을 눈치 채셨는지 누가 이 돌에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고 한다. 왼쪽의 돌도 그렇다는 듯이 말없이 나를 쳐다본다. 계단의 좌우에 있는 돌에 사람 형상을 그리면 장독대에 몰래 들어오려고 했다가도 멈칫하면서 다시 마음을 바로잡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서 국화꽃집도 지키고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예방하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석상을 그려야겠다고 구상을 한다. 무엇보다도 국화꽃 할머니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의 소망이 조금이라도 실현

되도록 그림을 그리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돌에 그려질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사진이 나타나듯이 그림이 눈앞에 나타났고 나는 그냥 손을 움직여서 돌 위에 그 영상을 담아내는 모습까지 보였다.

돌에 그릴 도구들을 챙겨서 그림을 그리러 가겠다고 전화를 하니, 이미 외출을 하셔서 아무도 없다고 그냥 가서 그리면 된다고 한다. 도착하고 보니 한낮의 태양빛에 돌도 뜨겁게 달궈져 있어서 손으로 만지기도 힘들 정도다.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돌과 펜은 열을 받아서 마음대로 쉽게 움직여주지 않는다. 장독대 옆의 오른쪽 돌에는 이 집을 지켜주고 할머니의 심장병을 낫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국화꽃과 하트 문양을 그려 넣었다. 빨간 하트를 크게 그려서 할머니의 심장으로 피가 잘 돌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면서 내내 기도했다. 다 그리고 나니 하나의 석상이 완성되었다. 돌 안에 숨어있었던 수호천사가 모습을 드러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20년 전 그림을 그렸던 감각을 떠올리며 그렸는데 의외로 잘 그려졌다.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그리니 돌에다 그렸는데도 그 뜻이 잘 반영이 되는 것을 느꼈다. 왼쪽의 삼각형 모양의 돌을 보니 이곳에서 할머니가 만드는 장과 국화꽃차를 담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남은 힘을 다해서 그린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건강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손수 만드신 이 음식들을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개의 석상을 완성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내려오니 다음날 전화가 왔다. 고맙다고 어제는 늦게 와서 못 봤는데 오늘 낮에 보니 너무 잘 그려줘서 인터넷에 올려야겠다고 한다. 인터넷으로도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소개하는 좋은 그림이 되어주었다고 소녀처럼 기뻐하신다. 다행이다. 소원대로 그림에서 빨갭게 빛나는 심장이 태양아래



서 밝게 고동치고 있었고, 할머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어주었다. 더불어 할머니의 장독대도 빈틈없이 지켜주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에게 커다란 선물을 해주었다. 20년 만에 그린 그림이 웃으며 말한다. “이제는 너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림을 그려봐.”

소문이 나서 함께 농활을 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 짝을 지어서 돌에 그려진 그림을 보러 산 밑에 있는 제일 윗동네인 국화꽃집에 가기 시작했다.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서 와서는 서로 돌려보고, 가서 보라고 정말 근사하다고 하고 있었다. 정작 나는 그림을 그리는 데 열중하느라 사진 한 장, 찍지 못했다. 나중에 부탁해서 구경갔다 온 사람이 찍어준 사진을 전해 받았다. 그때부터 나의 이름은 ‘손화백’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니 농가의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시고 부처상을 그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셔서 즐거운 고민을 해야 했다.

나중에 농활을 마치는 마지막 날, 그런 제안을 하셨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교류를 하자고 하면서, 농가에 와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곳에서 농사짓는 농산물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정말 멋진 생각이고 서로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귀한 교류의 장이 되겠다는 생각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올라왔다. 재능은 내 안에만 숨어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면 돌아와서 그것이 자신도 빛나게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재능이고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다. 20년 전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외 유학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놓아버렸던 붓을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값진 경험이었다.



개인부문 장려상 - 정철호

다 함께 덩실덩실,
더 가까이 얼썩!





농촌의 들녘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익어갑니다. 봄·여름·가을에 흘린 수많은 농부의 땀방울은 짝 찬 알곡과 과일이 되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지요.

농촌에서 자라난 저는 평생 동안 묵묵히 들녘을 지켜온 어르신들께 늘 감사하고 있던 터라,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마을방문 나눔 행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터라, 거창군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손잡고 함께 준비하면서 좀 더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한겨울 농한기 동안에 우리는 읍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7개 산골 마을을 골라서 다녔습니다. 읍내로 내려오시기 쉽지 않은 마을의 어르



신들을 먼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북상면 개삼, 갈항, 중산, 소정, 탑불, 신기마을, 신원면 양지마을, 고제면 용초마을로 이름만 들어도 정감이 가는 마을 들입니다.



처음엔 어르신들이 반가워하실까,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걱정도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읍이나 면소재지와 거리가 멀수록 우리들의 방문은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방문객이 뜸하니까 더 반가운가 봅니다.

마을회관에 일찍 도착하여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니, 어르신들이 속속 도착하셨습니다. 팔 다리를 조심조심 주물러 드리고, 마디마디가 콧콧 쑤신다는 손가락에 수지침을 한 땀, 한 땀 놓아드리자 어르신들은 멀리 있는 자식보다 더 반갑다고 우리를 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덩달아 마치 당신들의 자식처럼, 손자처럼 너스레도 떨고 재롱도 슬쩍슬쩍 안겨드렸습니다.

밭일 하느라 힘들고 구부렸던 몸을 쭉 펴기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는 “에구, 에구” 소리가 방안을 울렸지만, 힘껏 줄을 당기며 몸을 펴고 시원하다 하십니다. 쪼물락 양초 만들기 시간에는 동심으로 돌아간 듯 쪼물락쪼물락 예쁜 신랑각시를 만드시고는 손자들에게 자랑하신다며 호주머니에 꼭 챙겨 넣으시네요.

농촌 마을에는 까만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아오신 부부도 계시지만, 대부분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희끗희끗 백발로 세어버리고, 술이 등성등성하여 잡기도 조심스럽지만 가지런히 머리카락을 잘라드렸습니다. 읍내에 머리 자르러 나가

기란 아직도 사치스런 생각이 든다는 할머니께서, 우리 덕분에 열 살은 젊어졌다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참을 놀다 보니 배가 출출합니다. 거창 지역 사회적기업에서 각자 만들고 있는 음식들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무지개 색깔의 시루떡을 풍성하게 올리고, 별미 야콘 국수를 재빨리 삶아 송송 썬 김치를 얹어 뜨끈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틀니 때문에 시원하게 씹어 먹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국수를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여기에 칼칼한 막걸리 한잔이 빠질 수가 없지요.

마을잔치의 절정은 노래 한마당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소리꾼을 따라 오래된 유행가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애절한 젊은 시절로 잠시 돌아가 피로를 풀었습니다. 갈퀴마냥 마디 굵은 손으로 손뼉을 치시며 박장대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는 우리도 코끝이 찡해지며, 어르신들을 찾아온 보람이 느껴져서 더 크게 오랫동안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만남을 더하다 보니, 어느 새 겨울이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또 오겠느냐는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지내시면 또 뵈겠노라고 약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다시 만나서 더 재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좀 더 많은 마을을 찾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간 농촌을 감싸고 계신 어르신들께 웃음과 행복의 시간을 나눠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행복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개인부문 장려상 _ 박제희

7가지 색깔 아이들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보리공부방 아이들은 7가지 색깔을 가졌어요. 왜 7가지냐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기억으로는 그림을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사생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기억이 있는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집안 사정상 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갔고, 늦게나마 가슴에 담은 꿈을 마흔이 가까워진 지금 나이에 이루어 가고 있는 미술학과 주부 대학생이랍니다. 올해 졸업해요.

하고 싶은 그림공부를 늦게나마 시작하게 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광주에서 나주까지는 40분 정도면 되거든요. 아이들 수업에 사용할 도자기그릇을 사가지고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 기분은 정말 신이 난답니다. 어쩌면 아이들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나를 기다려요. 선생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조금이나마 농촌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생님이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재능기부는 주1회에 2시간씩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뒤에는 나를 기다린다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선생님 기다렸어요. 빨리 수업 해줘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종종종...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누나까지 함께 공부하는 나주에 있는 보리 공부방 아이들이에요. 도시 같으면 고학년 아이들은 오지 않겠죠. 학원으로 공부하러 다니느라 공부방에 올 일은 없을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공부방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차량운행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간식을 먹고 저와 함께 미술수업을 하게 돼요. 보리공부방

은 ‘비인가’라서 나라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포슬린아트¹⁾가 새로워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수업에 집중하고, 그렇게 떠들고 산만하던 아이들이 제 수업시간에는 한결같이 조용해집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다 보니 일본인 엄마도 있고, 중국인 엄마도 있고, 필리핀인 엄마도 있고... 그래서 제가 7가지 색깔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한결같이 개구쟁이들, 말이 많은 아이들, 투덜투덜 거친 듯해도 순수하기만 한 아이들, 올해는 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촌 아이들에게 미술특강 재능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림공부도 재미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삶의 보람을 농촌 아이들과 함께 하며 꿈을 키우고 싶어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수기에 올려봅니다. 늦은 아줌마 미술대학교 대학생이 신이 난 거죠. 아이들보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자기만의 디자인을 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지... “선생님, 잘 안 돼요.” 하고 어리광을 부리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얼마나 착하고 예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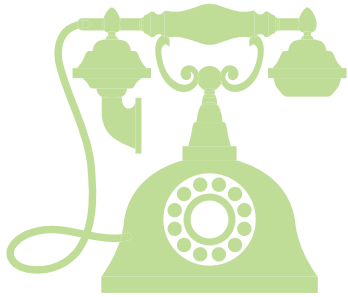
한 주, 두 주 아이들의 작품이 쌓여가면서 빨리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 작품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개인부문 장려상 - 이지호

학상리, 사진의 매력에 빠지다





어색했던 첫 만남 그리고 학상리

2013년 8월 12일 동대구역 제2주차장에서 집합한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 사진 프로그램 조원들. 처음 만난 사이라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렘 반 기대 반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목적지인 칠곡교육문화회관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단체복과 명찰, 수첩을 지급받고 백선기 칠곡 군수님의 환영인사와 인문학 활동을 계획하신 INDIE053¹⁾ 이창원 대표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엄숙한 발대식과 맛있는 점심식사를 끝낸 뒤 최종 목적지인 학상리에 도착하였습니다.

3개의 프로젝트, 주민들과의 만남

학상리에서 진행될 프로젝트는 총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인문학 활동이 적은 시골에서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을 구성원 전체와 소통을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마을 전 세대와 이야기를 나

누고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3일 동안 하루씩 마을 노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청소년층 총 3세대와 함께 대화하고 사진교육과 촬영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께서 직접 찌 오신 떡과 음료수로 서로 인사



1) INDIE053 : 독립문화예술단체

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장님과 어르신들의 환영인사를 듣고 나서 저희가 3일 동안 촬영하고 기록해야 할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이 놀던 산이라는 뜻을 가진 유학산을 끼고 있는 학상리는 소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곳곳에 숨겨진 전설들은 더운 여름 날씨를 잊게 해줄 만큼 흥미로웠습니다. 2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돌아다니며 인사를 드리니 마을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마을이 젊어지고 싱그러워졌다고 좋아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활동, 그리고 만남과 대화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활과는 다른 농촌에 인문학 활동을 하는 새로운 시도여서 지역 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러 나와 더욱 정신 없는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활동은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당신들의 살아오신 인생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과 함께 사진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정적이고 조용한 농촌에서 평생 사셨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 역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르신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당신의 삶의 이야기는 지나온 격동의 현대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생생한 역사 속의 장면들과 저희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에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으려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손사래를 치시며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본인들의 모습을 확인하시





며 다양한 포즈와 자연스러운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삶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표현력은 웬만한 프로보다 낫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더니, 촬영과 인화를 동시에 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중·장년층과의 활동은 노년층과의 활동보다 공감대 형성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이셨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진로문제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와 교육 기회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평소 사진촬영에 관심이 있으셔서 배워볼 기회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진촬영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전문장비를 갖추고 아마추어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촬영에 있어서 저희가 배우는 것도 많아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년들과의 시간은 저희들에게 즐겁고 잠시나마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인지 학생들은 저희들을 신기해하기도 하였고, 같이 놀 사람이 늘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장난도 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함께 사진 찍는 놀이를 하며 던지는 아이들의 촌철살인의 한마디들은 저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바지 전시회 준비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장기자랑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을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지고 장기자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밤마다 팀원들과 신나고 시끌벅적한 술자리를 가지기 보다는 행사 준비를 하느



라 분주했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땀 흘리며 찍은 사진과 마을 주민들의 작품이 인화될 때마다 뿌듯해서 고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전시회를 준비하였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사진 속에 나온 자신들을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니 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저희의 장기자랑을 마을회관에서 함께 즐겼고, 그 답례로 어르신들의 사물놀이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세대를 아울러 신나고 열정적인 여름밤을 마을주민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별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 4박 5일을 보냈던 학상리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매끼니 식사준비를 도맡아 해주시던 어머님들은 마지막 아침식사에도 공들여 주셨



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시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셨고, 일정 내내 저희를 따라 다니던 아이들도 아침 일찍 숙소로 와서 팬스레 툭툭거리며 아쉬워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자니 저희도 아쉽고 쉽게 발

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학상리에서 보냈던 시간은 저희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문학 활동을 할 기회가 적은 시골에서 사진을 통한 인문학 활동을 하고 기획의 장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대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나눔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눔으로 인해 나의 결핍되고 모자란 부분이 타인에게서 채워지고 딱딱하고 고단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을 통한 재능나눔은 저희 팀 구성원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개인부문 장려상 - 성시현

고남에서 아우름을 느끼다





1. 캄보디아에서 태안으로 향한 발걸음

올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2주 동안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는 라바옥초등학교에 가서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봉사, 노력봉사들을 하면서 사용할 기본적인 캄보디아 단어만을 외워서 갔지만, 아이들과 대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물론 만국의 공통어인 바디랭귀지가 있지만, 좀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없어 아이들을 조금 더 알아서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주지 못하였던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런 아쉬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연한 계기로 같이 캄보디아를 다녀왔던 몇몇 인원들과 태안 고남초등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캄보디아에서의 봉사 활동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교육과 벽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통에 목말라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고남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저는 고남 아이들의 선생님입니다

고남초등학교로 출발하기 2주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과연 아이들에게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인가?”에 대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검토해 준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 앞에 내셨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탁에 서서 아이들의 말뚱말뚱한 눈망울을 보는 순간 저는 고남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과학이야기와 교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설명을 해서 좀 더 쉽게 과학이란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선생님~” 하면서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볼 정신이 없었지만, 곧 적응이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을 때, 유난히 말이 없고 열심히 하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왠지 어렸을 적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일정이 오전에만 교육 재능기부를 하고서 오후에는 벽화 재능기부와 노력의 일환으로 일손이 부족한 고추 밭에서 고추 따는 것을 도와 드리기 위해 가는데, 초등학교에서 한참 지난 곳에 그 말이 없는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고추 밭으로 가야 하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교육 재능기부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이의 여동생이 울면서 언니를 찾는



것을 알게 되어 데리고 같이 수업을 듣다가 점심시간에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아이와 아이 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엇그제 보았던 산꼭대기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도 한참 내리막길을 내려가서야 아이의 집에 도착을 했습

니다. 안전하게 내려주고서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가 교육 재능기부를 한다고 아이들이 방학 중에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과 함께 ‘도시의 아이들과 다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 농어촌 아이들은 방학 중이라고 해도 부모님께서 대부분 농사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주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비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혼자서 아닌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학원 같은 장소가 부족하기에 집에서 멀어도 학교는 교육의 장이면서 친구들이 있는 놀이의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있는 힘껏 달려보자!” 이 다짐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즐기면서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에게 동화되어 쉬는 시간에는 서로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고 안마도 해주면서 ‘그래, 내가 어렸을 적부터 꿈 꿔던 선생님이 되어보자’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친구이자 선생님이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정성껏 해주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면서 고남초등학교 선생님이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 고춧가루 절대 비싸지 않아요

노력봉사의 일환으로 고추 밭에서 일손이 되어주려고 갔었습니다. 한여름 땀별에서 시작한 고추 따기. 처음에는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지만, 2~3시간이 지나면서 고추 딴 손으로 얼굴에 흐르



는 땀을 닦다 보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트에서 파는 고춧가루가 괜히 비싼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참으로 저희에게 냉면 한 그릇씩을 챙겨 주시면서 먹고 더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역시 시골의 푸짐한 인심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다시 힘차게 일손이 되어드렸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을 무렵 아저씨, 아주머니가 “내일도 또 올 거지?” 라고 하시는데, 다음날부터 준비된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전날부터 도와드리는 것이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하셔서 하루만 허락된 시간이라서 안타까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 농사일은 일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각지의 도시 학생들이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일손이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뇌리에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나는 여태껏 우리 시골에 명절 때만 갔을까? 한번쯤은 바쁠 시기에 가서 농사일 도와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실까?’ 더 늦기 전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러 가려고 합니다.



4. 벽화에 아이들의 꿈을 담다

벽화를 그리는 첫 날! 미리 정해온 도안은 실정에 맞지 않아서 새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다가 하늘과 바다를 표현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한두 명씩 와서 활짝 웃고 자기도 그리겠다고 하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덧붙여서 더욱 더 열심히 벽화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하늘이 질투를 하였는지 비가 내려 다른 벽화 작업을 하지 못하다가 다음날 다행히 비가 그쳐서 벽화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남초등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날 완성을 했지만, 주말이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 월요일에 등교한 우리 아이들이 벽화를 보고 즐거워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흔적을 남기는구나... 기억하겠지?

5.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말입니다. 현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따뜻함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태안의 아이들은 그래도 도시의 아이들보다는 순수하고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은 그저 공부해야지 성공한다, 장난치고 놀 시간에 5분이라도 더 공부해라 등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어 아이들을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강요합니다.

과연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부모님들의 만족을 위한 것일까요? 여기 태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단순히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학교가 지식만을 배우는 장이 아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야 아이들의 꿈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재능기부 활동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들이 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활짝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생각하며 아이들과의 추억을 기억하며 힘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Team Awards



☞ 단체부문

- 대상** 072 소외된 90% 농민을 위한 반자동 모종기
KAIST I&TM
- 최우수상** 080 대학생 멘토와 양구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아름다운배움
- 우수상** 087 희망 불어넣기 소셜메이트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봉사단
- 094 하품리로 떠난 스마일재능링크
중앙대학교 대학원 카우링크
- 099 너와 나의 꿈을 향한 ING
네오NEO (경희대학교 동아리)
- 장려상** 104 농촌 어린이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아동인형극단 동화나무
- 109 농어촌 재능기부는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걸음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재능본부추진단
- 115 황새, 비상을 꿈꾸다
Team Khurazy
- 121 반딧불마을 어르신들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KT IT 서포터즈 경기북부팀
- 128 나는 수의사의 길을 가고 싶다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백서인

단체부문 대상 _ KAIST I&TM

소외된 90% 농민을 위한 반자동 모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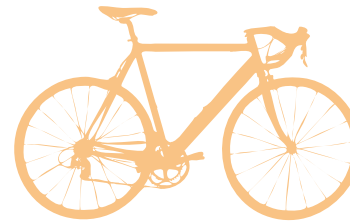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I&TM) TRIZIP

설립일 2012. 06.

대표자 송국은

회원수 6명

TRIZIP은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적정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공학설계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스치듯 지나쳤었던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포스터는 강한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흔히 ‘재능나눔’이라고 하면, 의사나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진료를 하거나 변호를 하는 것이거나 대기업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나 CSV(Creating Shared Value)를 통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라이프 스트로우(Life Straw)’¹⁾나 ‘큐드럼(Q-Drum)’²⁾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적정기술³⁾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는 소외된 90%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열정과 의지가 끌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부에서 서로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기술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이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프로보노’⁴⁾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제 3세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보다 가까이 우리의 작지만 소중한 도움을 필요로 할 만한 대상을 찾고자 노력했고, 저희는 고령화와 탈(脫) 농촌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불편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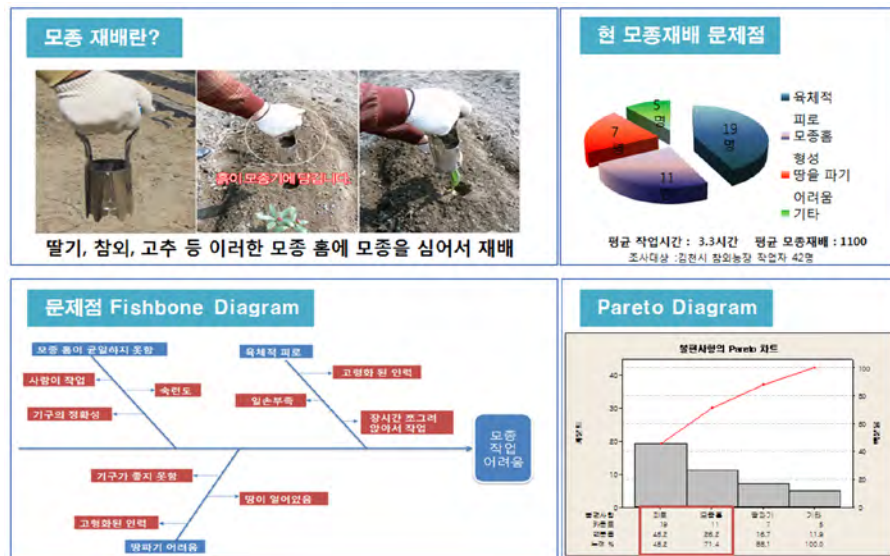


1) 라이프 스트로우(Life Straw) : 수자원이 오염된 개발도상국과 제3국 사람들에게 식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휴대용 정수 빨대
2) 큐드럼(Q-Drum) : 도넛 혹은 타이어 모양의 가운데가 빈 원통형 물통. 깨끗한 물을 갖고 먼길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
3) 적정기술 : 사회 공동체의 정치, 문화, 환경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4) 프로보노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



모종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을 느껴보다

농가에 계신 어르신들을 뵈러 농촌 실사를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가장 마음이 쓰였던 분들이 모종재배 중인 농민들이었습니다. 모종재배는 쪼그려 앉아 모종삽으로 흙을 파야 하는데, 장시간 햇빛에 노출된 채 고된 작업을 하셔서 매우 고생스러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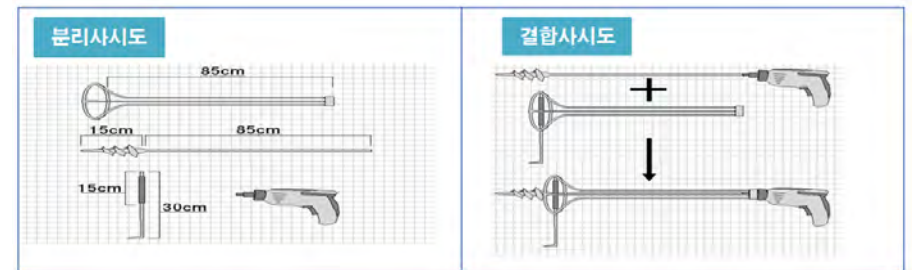


저희는 이러한 모종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김천시 참외농민 42분께 모종재

배의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모종재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육체적 피로, 균일한 모종 흙 형성, 토굴의 어려움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피쉬본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으로 확인해 보니 육체적 피로의 원인은 고령화 인력, 일손 부족,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진행되는 작업이었고, 모종 흙이 균일하지 못한 점은 기구의 부정확성, 속린도 부족, 사람이 손수 작업하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파기 어려운 이유로는 고령화 인력, 기구의 성능부족, 얼어있는 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파레토(Pareto)의 법칙에 따라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피로도 와 모종 흙의 균일성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모종재배 농민들을 위한 ‘모종 흙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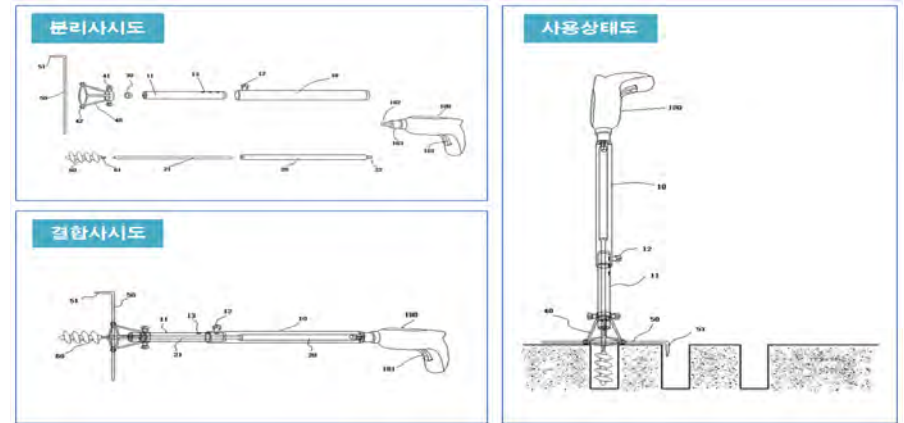
모종재배 농민을 위한 제품의 설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첫째, 농촌의 고령화 인구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둘째, 균일한 모종 흙을 형성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휴대용 드릴과 구굴날을 결합하여 쪼그려 앉지 않고, 작업자가 땅을 파면서 깊이나 간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깊이와 간격으로 모종 흙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하여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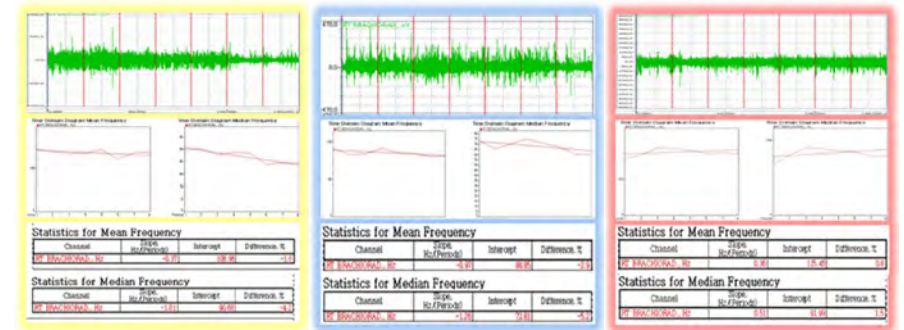
설계를 마치고 각자의 전공과 특기를 발휘하여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들었습니다. 제작 후 경력자의 조언을 받아 설계도면에 근접하게 첫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제품이 처음 고안했던 것처럼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쪼그려 앉지 않고 서서 손쉽게 균일한 모종 흠을 형성’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었고, 다소 이른 보람을 느낄 때였습니다. 하지만 뿌듯함도 잠시, 모종재배 농민들께 시제품의 사용을 제안하고 곧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 인구에 비해 평균키가 컸던 저희에게 길이를 맞춰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실제로 사용할 농민들께는 높이가 맞지 않아 편의성이 떨어졌고, 모종 재배품마다 모종 흠의 깊이가 다른데 똑같은 깊이의 흠만 팔 수 있었습니다. 혁신은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가능했습니다.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모종 흠의 깊이도 조절할 수 있는 모종 흠 파개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수정과 개선을 거쳐 탄생한 모종기는 EMG 분석결과 대조군 대비 균일성은 가장 높았으며, 피로도는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비 작업량에서도 월등히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작은 지식이 열정과 만나 맺은 열매가 농촌에 계신 모종을 재배하는 어르신들께 공급되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보람 있었고, 기업들만 나서서 재능기부를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앞장서서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좋은 기술이라 할 수 있는가?

높고 험한 산만이 명산이 아니듯 비싸고 새로운 기술만이 좋은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그 효용으로 사람을 더욱더 편하게 해주는 것에 존재의 이유가 있듯 기술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빠르게 그리고 또 쉽게 생활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원인 세 명의 공학도가 대학원에서 배운 기술경영의 관점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인계층의 애로를 면밀히 분석하여 빠르고 또 정확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지식과 열정의 열매를 맺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의 봉사보다 얼마의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도 고생하시는 모종재배 농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 재배효율을 월등히 높여 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가 배운 과학과 기술 응용의 참된 사례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기적인 이익창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소외당하는 90%를 외면하고 오로지 10%만을 위해 사회와 국가 그리고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중 FTA 체결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매번 정부와 국가 그리고 사회는 최첨단 산업과 IT 제품에 집중하고 농민들의 권리와 농촌보호에는 많이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식주의 가장 근원이 되는 농업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며, 농민들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소외된 90%의 농민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시키는 일을 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공은 사회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받은 값진 기회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는 안철수 전 카이스트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희

는 저희가 배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업화의 능력을 소외당하는 농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참된 프로보노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공학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은

단체부문 최우수상 _ 아름다운배움

대학생 멘토와 양구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아름다운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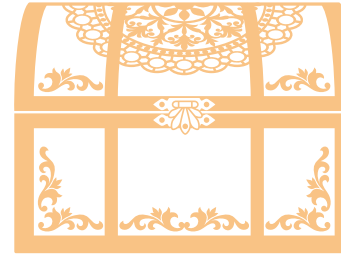
<http://beautifullearning.org/>

설립일 2009. 07. 01.

대표자 고원형

회원수 1,000여명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설립,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멘티가 함께하는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특히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 지역에는 총 열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숫자를 모두 합친 것이지만, 강남구의 초등학교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처음 양구 지역을 찾아가 아이들을 직접 대면했을 때, 농촌의 교육 현실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은 '오만 원'을 적을 때마다 '오마넌'으로 받아 적었고, 한 중학생은 초등학교 시절 배우는 일차 방정식을 풀지 못해 수학을 포기했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학교는 적었고 어른들은 너무 바빠서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싶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구 지역의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배움'은 농어촌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를 가치로 삼고 있는 '아름다운배움'은 2009년 7월 창립 이래 배움 나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소득계층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 학교부적응 아동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는 것을 목표로 자체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해왔습니다. '꿈사다리 학교'는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개발한 2주간의 집중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 멘토들과 진로 교육 캠프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꿈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는 것이 양구 지역을 찾는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와 멘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기관을 어렵사리 섭외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아이들 모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꿈사다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



고, 부모님들은 멘토링의 필요성에 의아해했습니다. 방학에는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익숙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해보자고 설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

름다운배움’과 뜻을 같이하는 지역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 덕분에 아이들 모집이 완료되어, 2011년 8월 7일 15명의 대학생과 양구 지역 아이들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첫날, 30명의 양구 아이들은 낯설어하면서도 신기한 표정으로 대학생 멘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시선에 당황하던 멘토들은 양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없고, 태어나 처음으로 대학생을 만났다는 몇몇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가벼운 인사와 웃음을 나눈 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오려 붙여 자신의 꿈을 연도별로 계획해 보는 비전폴라주, 모션으로 배우는 성공을 위한 11가지 요소 등 ‘아름다운배움’에서 자체 개발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프로그램 자체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자기 손으로 직접 사본 일조차 없었고, 발표를 할 때마다 어색하고 자신감 없이 울상을 지어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본인의 꿈을 Do(하고 싶은 것), Be(되고 싶은 것), Have(가지고 싶은 것), Go(가고 싶은 곳)로 나누어 적어 내려가는 프로그램 앞에서 아이들은 한 줄 이상을 채 써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직업을 접해보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적을 수 있는 꿈의 범위는 농부, 버스기사, 군인 등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이 끝난 이후 ‘아름다운배움’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도시에 맞춰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는 농어촌 아이들을 제대로 포용할 수 없다는 뼈저린 반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멘토들과 함께 모여 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끝에 아이들과 대학생 멘토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촌 아이들과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맞추기 위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아이들에게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시간에 쭈뼛쭈뼛 한 마디도 못하다가 울음을



터트리던 00이는 친구들 앞에서 씩씩하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멘토가 열 마디를 해야 겨우 '네' 하고 한 마디를 내뱉었던 00이는 멘토 선생님의 팔짱을 끼고 어제 있었던 일을 재잘재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어렴풋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그려보는 아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멘토들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소개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SKY와 강원대학교 밖에 몰랐던 아이들에게 경제학과, 법학과,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등의 대학 전공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은 신선하고도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대학교에서 무얼 배우는지, 대학생들의 일상 모습은 어떠한지, 졸업 후에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를 듣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며 전날 새벽 3시까지 수업자료를 만들며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내용, 더 풍부한 볼거리를 준비했던 멘토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니다.

캠프가 끝으로 향해갈수록 우리는 아쉬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제야 겨우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미래와 꿈에 대한 씨앗을 발견했는데,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막바지로 향하여 마지막 날, 저녁에 있을 '씨앗콘서트'에 선보일 영어연극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내내 어려워하던 아이

들이 직접 소품을 꾸리고 연기 아이디어를 나누는 등 처음의 소극적인 모습들은 없어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앞장서는 아이들만 가득해졌습니다.

콘서트 당일, 아이들을 찾아 온 학부모들로 관객석이 채워졌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며 어느새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배움'에서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준비한 것은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변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양구 '꿈사다리 학교'는 올 여름 5번째 기수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과 양구에서는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꿈이 없어 갈팡질팡하던 00이는 PD라는 꿈을 찾아 스스로 고민하며 서울 영상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또한 막연히 음악가라는 직업을 꿈꾸던 00는 작곡가 멘토를 만난 후 '음악 프로듀서'라는 꿈을 키워 현재 음악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교생활에 문제를 겪었던 00이는 멘토와의 꾸준한 연락으로 성격이 많이 밝아져 친한 친구들이 생겨났고, 게임중독으로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00이는 게임을 끊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놀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아이들이 본인의 꿈을 찾고 한걸음씩 다가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멘티 모집도 이제는 학부모들로부터 먼저 문의전화까지 쇄도할 정도가 되었고, 양구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배움’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도 늘고 있어 지난여름에는 모집 경쟁률이 8:1에 육박했을 정도입니다. 2013년 현재에는 양구뿐 아니라 태백과 연천의 청소년들에게도 꿈사다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오만 원’을 ‘오마넌’이라고 적어도, 일차 방정식을 좀 몰라도, 아이들은 모두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멘토 선생님을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의 재능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양구 아이들은 서울 아이들보다 영어 문법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뭉게구름과 새털구름의 차이를 새겨 하늘을 볼 줄 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배움’은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스스로 그 꿈을 향해 걸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이 제공이 되기를 말입니다.

2011년 여름 양구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멘토였던 저는 지금 ‘아름다운배움’의 교육팀장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야만 하거나, 도시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꿈꾸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6기 꿈사다리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중동

단체부문 우수상 -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봉사단

희망 불어넣기 소울메이트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봉사단

<http://info.korail.com>

설립일 2006. 01.

대표자 권영석

회원수 1,025명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슬로건 아래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쳐나가며, 단순한 기부활동이 아닌 재능을 나누는 현장 밀착형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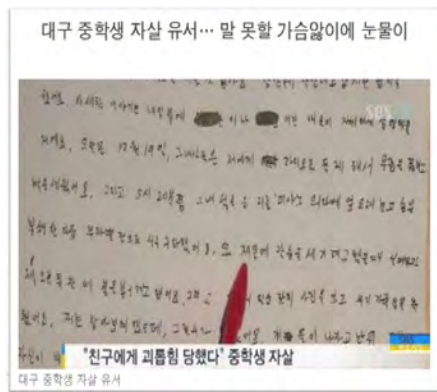


Round 1. 시작은 불우 청소년들과 소울메이트였다

학교폭력에 관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이런 의문이 들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나 또한 그저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청소년들의 소식을 접할 때, '부모님이 주신 목숨을 함부로 희생하다니' 내지는 '자살할 용기가 있음 그 힘으로 상황을 해쳐 나가야지' 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무심코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런 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

꿔놓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가히 우연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가까워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이었다.

자살한 청소년은 다름 아닌 내 아내의 고등학교 은사님 자녀였던 것이다. 그 학생의 장례식 날, 그곳에서 가족의 비통함, 친구들의 울부짖음, 선생님들의 절규를 보고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의 슬픔도 이렇진대 과연 가족들과 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아려오곤 한다. 그 일을 몸소 느끼고 난 후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지역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 나는 미력하나마 내가 맡고 있는 코레일 사회봉사 활동 방향을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에 초점을 두고 장기 전략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다.



2012년 1, 2차에 걸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0만 명(9.1%)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약 10명에 1명이 학교폭력에 고통 받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현실이었다. 이런 청소년 학교폭력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내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다각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였다. 지자체 관계자, 교육계 담당자 및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과 3개월여의 만남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의 단점인 개인주의 팽배와 정보기기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편협한 성향을 완화시키는 공동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고, 참여위주의 흥미를 유발시켜 참된 학교문화를 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온고지신(溫故知新) 프로젝트』였다.

우리 회사 관내(안동시, 영주시 등)는 예로부터 선비의 본 고장으로서 저명한 선조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이러한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옛 선조들의 올바른 도덕관과 느림의 미학을 그 후손들에게 배워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정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투호놀이, 토래조정회의 및 선현 뵈기 등 모듬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하여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다. 또한 농촌 불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레일 고유의 인프라(기차여행, 기관차 시뮬레이터 체험 등)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흥



미를 유발시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과 거리를 두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복지 아동센터에서 추천하는 학교폭력에 노출된 농촌 불우 청소년들과 함께 한 첫 번째 만남은 2012년 9월 퇴계 이항 16대 종손과의 1박 2일 청렴체험을 시작으로 2013년 서애 류성룡 14대 종손, 농암 이현보 17대 종손과의 만남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소중한 시간을 9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였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한 코레일 기차여행을 4회, 또래모임 힐링캠프 1회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도 병행하였다. 물론 효과분석과 사후관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놀랍게도 프로젝트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지수는 당초 50.6%에서 36.2% 향상된 86.8%로 측정되었으며, 예방지수는 당초 60.2%에서 32.2% 향상된 92.4%가 도출되어 온고지신 프로젝트를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역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형성을 위해 이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들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종손 어른신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Round 2. 청소년들과의 인연이 농촌사회 소울메이트로 이어지다

온고지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었다.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 그대로를 여과 없이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인식하여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조심스러워 했다. 예를 들면,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분위기 주도, 화를 잘 내고 성미가 급하며 자존심이 강해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의 경우는 자신감이 결여되고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적이 하락되며 무엇보다도 우울증이 수반되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학생의 가정환경은 우리 봉사자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는데, 사연인즉슨 이러했다. 1, 2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여중생인 00 학생은 영주시 순흥면에서 거주하면서 기초수급대상자로 학교점심 급식 시간에 간단한 청소 및 식판 닦기는 것을 도와주고 무료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고 있었는데, 또래 학급친구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행까지 당하는 소녀였다. 2차에 걸친 프로젝트가 끝나고 약 4개월 후 영주시에서 추천하는 조손가정을 위한 집수리(이하 코레일빌리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 관계자와 현장실사 차 한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학생의 집이었다.



알고 보니 조손가정의 소년소녀 가장이면서, 2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지적장애 2급인 사촌 남동생과 함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었다. 코레일빌리지를 하던 3일 동안은 말수도 없고 표정도 무뎠던 아이가 4일차부터는 조금씩 소통이 가능하였고, 마지막 5일차 우리가 떠나올 때 즈음 조심스럽게 다가와 “코레일 아저씨 힘들어요.” 라고 말을 건네는데, ‘학교에서는 폭력과 따돌림, 가정에서는 생활고로 15살 아이가 어떻게 감당해 왔을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5일간의 집수리 동안 00의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곧잘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다행스러웠다.

수년간 코레일빌리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면서 이처럼 어려운 가정이 한 두 가정이었겠는가? 우리 코레일 경북본부 봉사단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농촌의 불우가정에 대해 매년 4차례 이상 7년간 32가구의 집수리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그 수혜대상으로는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



노인 및 지체장애인 등이었다. 이런 어려운 가정들의 생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보람도 느꼈지만, 더 큰 보람은 이네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처음 집수리를 갔을 때는 하나같이



이 긴가민가한 의심 내지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며칠간의 노력 끝에 깨끗한 집이 완성되면, 그 의심의 눈초리가 이내 밝은 희망의 웃음으로 변하고, 몇 달 후 사후관리 차 가정방문을 가보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의 작은 나눔 활동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표정을 짓게 할 수 있어서 참 가슴 뿌듯하였다.

누구에게나 웃음을 주는 것은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얻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 우리 코레일 경북본부 봉사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참 의미의 참여형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울메이트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조현민

단체부문 우수상 _
중앙대학교 대학원 카우링크
하품리로 떠난
스마일재능링크



중앙대학교 대학원 카우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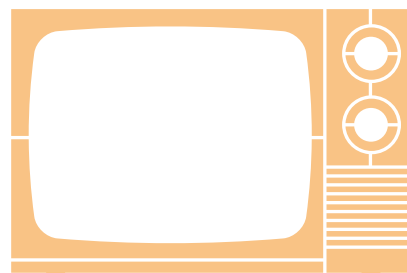
www.gscau.co.kr

설립일 2013. 04. 01.

대표자 오종문

회원수 30명

카우링크는 중앙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과 한국인 대학원생이 각국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교류하는 단체입니다.



“진정한 한국 문화를 모르겠~어요...”
 “쉬~골 마을과 사람드를 만나보고
 시~피요”

도서관, 프로젝트, 논문 속에 쌓여 무의미한 방학을 보내던 중앙대학교 대학원 원우들. 외국인 친구들의 요청으로 보다 색다른 방학을 보내기 위해 큰 여정에 오릅니다. 이름하여 ‘한국,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친구들이 함께 떠나는 농촌 문화 체험 & 일손 돕기 글로벌 프로젝트!!!’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캠프 속으로 떠나 보실까요?

Step 1.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알록달록 캄보디아 비즈 팔찌도 만들고, 외국 장인(?)이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입체 초대장도 준비했어요. 또한 4



출발하기 전 한껏 들뜬 모습의 친구들. 아대요, 우리 20살 새내기들 같지 않나요?



개국의 음식을 농촌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글로벌 파티’를 마련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키스탄의 카레와 할랄 푸드를 드신 할머니께서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저에게 껏속말로 레시피를 물어 보실 때, 마치 할머니의 손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Step 2.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마을에 방치되어 있던 화장실과 물탱크의 외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쁜 물고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또한 휴가철 계곡에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농

촌 어르신들을 위해 환경 표지판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 세워두었지요. 앞으로는 물고기들이 맑은 물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어른들과 아이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자연을 쉽게 이용하지만 누구도 자연을 쉽게 되돌리지는 못하니까요.

Step 3.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농촌에 왔으면 농촌 법을 따르라.’ 그렇다면 우리도 마을 어르신들의 재능을 함께 배워봐야 하겠지요?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할아버님 말씀을 따라 꼼꼼히 짚단을 엮



다 보니, 깜찍한 미니 빗자루가 완성되었어요. 다들 땀이 송골송골 맺혀가며 또 하나의 재능을 익혔답니다. 이렇듯 스마일재능뱅크는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내국인도, 도시의 어르신도 농촌의 어르신도, 모두 다 함께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다음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엿한 재능기부단입니다!!



김주영

단체부문 우수상 -
네오NEO (경희대학교 동아리)

너와 나의 꿈을 향한 ING



네오(NEO)-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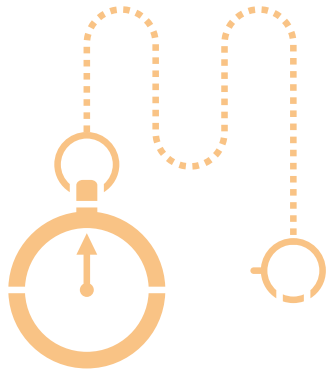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네오네오상스관 B1 502호

설립일 2010. 03.

대표자 서민지, 김주영

회원수 약 30명

경희대학교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입학 취지를 살려 입사관ing 프로젝트 진행 및 지방 중소도시 고등학생들에게 드림컨설팅이라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는데...”
 “난 작가가 꿈인데, 수학이 너무 어렵잖아.”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 같은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가긴 하늘의 별 따기래...”
 “학교 공부도 못하는데 꿈은 무슨...”
 “꿈은 이루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얼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해.”

아직도 당신의 꿈 앞에 수많은 장애물을 나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많은 청소년들은 종종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낙심하고 꿈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요즘 사회는 당신의 '결과'만이 아닌 당신의 '과정'까지도 인정해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네오(NEO)는 수능, 내신점수와 같은 '결과'보다는 충실한 학교생활,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 올바른 인성 등의 '꾸준한 과정'을 인정받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동아리 네오가 '과정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사회'를 경험한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수능, 내신과 같은 객관적인 점수는 최소한으로 반영되고 자기소개서, 입증자료, 면접의 방식 등을 통하여 학생의 가능성과 같은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 되는 전형입니다.

이러한 입학사정관제가 저희 네오 그리고 다른 지방 중소도시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때는 성적이나 가정환경과 같은 장애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 했던 경험이 있으나 '끝까지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극복하였고, 그러한 스토리가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들어 올 수 있었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장애물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는 학생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네오는 지방 소도시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럼 네오의 입학사정관 멘토링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네오 선발대 팀은 강원도 철원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2013학번 후배들은 어제 과제준비로 피곤한지 뒷자리에서 쿨쿨. 하지만 2012학번 네오 임원진들은 버스 안에서도 학생들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과 설명회에 대한 책임감에 노트북을 켜놓고 회의가 한창입니다.

우리가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신철원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인 강당에서 1차적으로 전체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입학사정관제는 화려한 스펙이나 해외경험, 내신1등급, 사교육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방 소도시의 학생들은 시도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체 설명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인지', '입학사정관제의 오해와 진실', '필요한 서류' 등의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한 학생도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뒤통수에도 불꽃이 활활 타올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자신이 성적에 강점이 있는 'Brain 유형'인지, 면접에 강한 'Lips 유형'인지, 인성과 스토리텔링의 'Mind 유형'인지, 현장경험과 'Feet 유형'인지에 따라 각 반에 배정되어 멘토들과 조금 더 친근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간호학과 2013학번 이재준 멘토의 Mind 유형 반입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극복하고, 기회균등선발전형으로 간호인을 꿈꾸며 입학한 이재준 멘토!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친구들이 꿈을 찾고 이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는 그이기에 진심 어린 멘토링이 이뤄집니다. 인성과 봉사를 강점으로 내세운 멘티와 멘토가 만난 만큼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잘 이해하며,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하여 꿈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뿐입니다.

뚝 부러진 언니, 하호명 멘토는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면접에 임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하여 면접 심사관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형별로 나뉜 7개 반 모두에서 열정적인 강의가 이뤄졌죠. 그리고 저흰 그렇게 희망의 여운을 남기며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영어 점수, 취미활동, 공모전 입상, 전공 공부 등등 바쁜 대학생활에 있어서 봉사 활동 증명서 하나 발급되지 않는 이 재능기부를 왜 하느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희 네오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입학사정관제 마인드는 대학을 꿈꾸는 고등학생에게도, 대학을 입학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대학생에게도, 그리고 그 꿈에 다가가고 싶어 하는 그 누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ING 마인드를 미래의 후배들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현장의 사람들과 공유하길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꿈을 향해 현재 진행형(ING) 노력을 할 때 이 사회는 더 활기차게, 희망차게,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을 저희 네오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석희

단체부문 장려상
아동인형극단 동화나무

농촌 어린이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아동인형극단 동화나무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우방산천지A 202-1101

- 설립일** 2003. 03. 01. | 이야기와 아이들이 좋아 모인 주부들의 공연단체. 문화적으로 소외된 다양한 계층 및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관련 강의를 직접 실천하는 재능나눔 단체입니다.
- 대표자** 주석희
- 회원수** 9명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오늘도 공연을 준비하는 동화나무 회원들. 가정과 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우리 회원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동화나무는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어서 늘 농촌 속의 생활을 하며 농촌 어린이와 문화적으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까이서 찾아갈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스마트재능뱅크를 통해 생각만 있고 실천하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아이들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농촌어린이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인형극 공연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에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연극 놀이, 요리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함양과 창의성을 개발시키며, 위축되어 있는 농촌 학교에 활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농촌 마을 전체가 건전하고 적극적으로 화합, 발전하고자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 동화나무는 매월 농촌 지역을 방문하여 마을 이장님 및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농촌의 현 실정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농촌의 마을 분위기는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마을회관을 들어서면 70대의 어르신들이 젊은 층에 속하는 것을 실제로 접하고는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점 삭막해져 가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화나무는 농촌 마을에서도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자는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말 이른 아침, 동화나무 회원들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차량마다 이삿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득 실려 있는 재료들. 아이들은 내리는 짐을 보고 “뭐 할 거예요?” 라며

연신 질문을 쏟아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빙빙 맴돕니다. 마을에 인접한 초등학교 소재 친구들은 아마 모두 모인 듯 마을은 일순간에 시끌시끌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하며, 아이들은 동네 주민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요리도 해서 먹고 공연도 보면서 시끌벅적한 하루를 보냈지요. 주말 대낮 회관 앞에 이렇게 많은 초등학교들이 모여서 지지배배 떠들고 웃는 모습을 본 게 까마득하다며, 40여 명의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시던 한 어르신은 동네에 저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물이다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가슴 한 편을 아련하게 만듭니다.

동화나무 인형극장

“안 돼. 하지 마. 따라가면 안 돼!!! 하하하하하하”

아이들의 눈과 마음은 이미 인형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비밀은 없어’는 4대악 근절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주제인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주제로, 학교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 테마를 인형극이라는 재능기부 형태를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더 많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공연 내내 주인공과 혼연일체가 된 아이들의 모습은 동화나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생명수 같은 기적을 보여준답니다.



나도 요리사

아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프로그램~
내 손으로 만들고 내 손으로 볶고 내
가 직접 끓여 먹는 맛난 스파게티~

후루룩잡~ 이렇게 즐겁고 맛있을 수
가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환상의 스파게티. 함께 온 외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솜씨자랑에 혼연일체!!! 평상시에 농사일과 맞벌이하는 엄마아빠랑 함께하기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엄마도 아빠도 무거운 생활의 짐을 살짝 내려놓고 동심으로 빠져 듭니다. 내 손으로 내가 만든 나만의 스파게티. 동화나무 스파게티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환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니강내강 함께 놀아요

달팽이 돌아라~ 뱅글뱅글 돌아라 달팽이 놀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옛날 골목놀이 속으로 쏙 빠져드는 순간.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아이들은 목청이 터져라 응원을 하고 그 속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세대를 아우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촌 마을 만들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고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놀 수 있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날만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혼자 놀아야 하는 외로움도, 또 컴퓨터 게임도 안녕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아빠가 놀았던 골목놀이를 재연해봄으로써 어른들께는 지나는 추억 여행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을 추억 여행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꼬마 예술가

오늘 하루의 해가 점점 기울어가는 밤. 눈에서는 개구리들도 노래를 부르고 저물어 가는 해와 함께 잦아드는 시원한 여름밤 바람. 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살짝 반갑지 않은 모기까지. 오늘은 아이, 어른, 개

구리, 모기, 해, 바람, 달까지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밤입니다. 마을회관 앞 예쁜 정자에서 동화나무와 함께 칠곡연예인협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도 어른도 덩실덩실 춤사위를 펼치며 오늘을 마감합니다.

마을에 계신 어느 어른신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아이들이 늘 있다면, 우린 진짜 부자 마을이 될 거다. 마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온 지 얼마지 모르겠다. 오늘은 신나게 부자 마을이 됐다. 즐겁다.” 고 하시네요. 역시 아이들이 희망이고 미래임에 틀림없나 봅니다.

이렇게 동화나무는 농촌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건강한 웃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하루를 마치고, 마을 주민들과 행복한 뒤풀이도 했지요.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마을 주민들은 외부에서 온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고, 기꺼이 마을회관에서 우리의 1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어김없이 밤새 우리들의 행복한 수다 꽃은 피어 올랐지요. 스마일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치열한 생활의 현장에서 벗어나 엄마로 주부로 살면서 잊어버린 나의 꿈, 우리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화나무 회원들과 오늘 함께 봉사하신 많은 분들도 너무 행복한 밤을 보냅니다.



김혜영

단체부문 장려상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재능본부추진단

농어촌 재능기부는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걸음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재능본부추진단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

설립일 2012. 11. 13.

대표자 예병훈

회원수 125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에 맞는 재능기부 분야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자체적으로 구성된 조직.



행복공감 재능본부추진단은 어르신 손등마냥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추운 겨울날, 70여 명의 노인 분들만 계시는 오지마을, 경북 의성군 다인면 용무리마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4개월 후 봉화에 서, 또 4개월 후에는 청도에서 농어촌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었다. 내가 가진 뭔가를 주었는데도 더 많은 것이 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꼭 채울 것만 같은 이상한 경험, 해본 적이 있나요?

도시에서 나고 자라 기껏 일 년에 한두 번 고향을 찾는 게 다인 나였는데, 내 나이 사십이 넘고 농어촌공사에 근무한지 20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이야 고향의 의미가, 땅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고, 농사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우리네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면서 농어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재능이란 게 있나? 이게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까? 어르신들이 혹여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약간은 위축된 마음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재능이 특별한 능력이란 단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손길이란 것을 알아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다.

의성 용무리마을에서의 첫 경험... 아, 이거 중독되겠네. 의성군 다인면 용무리마을에 시내버스가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2월이라고 한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2년 12월 어느 날, 30여 명의 재능기부 초보자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이곳에 도착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어색하게 눈치만 보다 느릿느릿 움직이더니 그래도 어느새 자기 맡은 역할을 찾아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래도 조직이 뭔가 다르긴 하네~하는 누군가의 우스갯소리에 긴장한 얼굴에 웃음이 묻어났다. 다들 몸이 가벼워져 부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장수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어르신들을 곱게 화장 시키고, 머리도 빗어드리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라드린 일이다. 화장하기 전 얼굴을 닦은 스팀타월이 까맣게 변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세수도 안하고 오신 거야?’ 하는 마음에 한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그때 2년 전 돌아가신 엄마, 흠 속에 묻혀 있을 주름진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암으로 투병하시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엄마, 돌아가시기 3일전 주말에 대구에서 서울병원에 온 막내딸을 보며 유난히 기분 좋은 엄마의 얼굴을, 손발을, 팔다리를 닦아드리고 손톱, 발톱도 깎아드렸는데, 이제는 만질 수도 없는 엄마생각에 기분이 묘해졌다.

누군가가 따뜻한 스팀타월로 얼굴을 닦아주는 경험은 처음이라며 너무 좋아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더 정성스레 얼굴을 닦고 두꺼운 손톱도 팔에 힘줄이 보이도록 힘을 쥐가며 열심히 깎아드렸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쭈글쭈글한 주름살 사이 꼭꼭 숨겨져 있던 그것은 먼지일까, 흙일까? 인생일까, 세월일까? 타지에 있는 자식들은 모르겠지? 그때 나는 느꼈다. 재능이라기엔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나는 이 활동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 같이한 단원들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한 곳을 보고 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꼈다. 두 번 세 번 회를 거듭할수록 얼굴을 닦는 손길은 더 정성스러워지고 할머니 얼굴은 새색시처럼 더 예뻐지고 할아버지의 사진은 더 멋지게 나오는데, 어찌 중독되지 않을 수 있을까?

2013년 4월 드디어 행복공감 재능본부추진단의 두 번째 활동. 전날부터 지난번 의성 용무리마을에서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 번 긴장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까지 재능기부가 온전히 내 일이라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이겠지. 어쨌든 대구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인 봉화군 주치골마을까지 가야하기에 아들 둘을 평소보다 일찍 깨워 이른 아침을 먹고 학교로 보내는 부산한 아침을 보내고 서둘러 출발했는데 이럴 수가!!! 하늘에서 도와주지를 않는다. 버스에서 내리니 빗줄기가 예사롭지가 않다. 하나 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웃을 꺼내 입고 각자의 위치로 가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치골마을에서는 주택수리를 위해 찾아간 집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부엌과 방이 나란히 붙어있는 집에서 허리는 7자로 휘어져 땅바닥이 앞인 양 살아가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홀로 생활하시는 집이다. 집 외벽으로 전선이 다 노출되어 있었고, 방 옆의 부엌은 위쪽이 다 뚫린 상태로 겨울에는 사용조차 힘든 상태였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쭈뼛거리는 우리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먼저 다가온 것은 할머니였다. 뭉가가 머리를 치는 듯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빨리 집을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나뿐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때부터 우리 모두 또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니까.

할머니께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후전선을 교체하고 전기누전을 점검하고 할머니 웃음만큼 환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등기구를 교체하는 작업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 그사이 전기 작업에 비전문가인 나를 비롯한 몇 명의 단원들은 부엌을 손봐드리고 집안 청소도 하면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전기가 들어오고 난 후 처음으로 등기구를 교체한다는 할머니 말씀에, 내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아직도 많구나 하는 생각에 내 부모, 남의 부모 구분할 일도 없다는 마

음이 절로 들었다. 문지방을 나서지도 못하고 방문 앞에 앉아서 연신 고맙다 하시는 할머니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2013년 9월 초에 세 번째로 방문한 그 곳은 무더위로 유명한 대구와 가까운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마을, 그날도 역시 한여름 더위가 주위를 잡아 삼킬 듯 맹위를 떨치고 매미는 마을이 떠나갈 듯 맴맴 울고 있었다.

며칠 전 담당자와 나는 얘기가 생각난다. ‘아, 재능기부도 좋긴 한데, 이 더운 날에 꼭 이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애꿎은 담당자에게 원망 섞인 잔소리를 하고 말았는데, 곧 있을 추석명절 전에 활동을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단체 활동이 이래서 어렵구나. 담당자님, 고생이 많으세요~’ 하며 콧소리로 아양을 좀 떨었었다.

그런데 대전리마을은 오지마을도 아니고, 소득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기에 단원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마을답사도 하고 이장님과 만나 얘기도 하면서 기존에 하던 활동에 벽화그리기를 추가로 하기로 하였다. 대전리마을에도 주인 없는 빈집과 방치되어 있는 담장이 있어 이번 활동은



빈집을 정리하고 벽화그리기를 중심으로 하기로 하였다. 농어촌마을에 빈집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현실에 서글퍼지기도 했지만, 우리 단원들은 새로운 활동에 의욕이 넘쳐나는 듯 보였다. 활동 시작 전 조금은 무관심하던 어르신들도 환해지는 골목길을 보며 연신 병긱병긱 웃으며, 피약별에 고생 많다며 물과 함께 복숭아도 직접 따다 주셨다. 입에는 복숭아 한 입 물고 손에는 붓을 들고, 얼굴은 타들어 갈 듯 별갈게 달아올랐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지난 일년의 농촌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진 아주 조그만 것에 크게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가만히 있을 땐 먼저 손내밀기, 손내미는 사람에게는 팔을 내밀고, 팔 내미는 사람에게겐 포옹하기, 우리 모두 한걸음씩만 앞으로 다가가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요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이름 석자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가득찬 가슴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임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재능이라 하기엔 너무 부족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참에 감사하고, 농촌 재능기부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한다.



이준성

단체부문 장려상 - Team Khurazy

황새, 비상을 꿈꾸다



Team Khurazy

- 설립일** 2013. 06.
- 대표자** 이준성
- 회원수** 5명

"Team khurazy"는 경희대 원예생명공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1. 꿈포유 예산 황새마을에 가다

“황새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은 생태계 먹이사슬이 깨졌기 때문이다.”

9월 28일, 우리 팀은 오전 9시경 마을에 도착했다. 재능기부를 신청하신 마을의 목사님을 교회 앞에서 찾아 뵈 수 있었다. 재능기부가 처음이었던 나와 내 친구들은 벌써 의욕부터 앞섰다. 목사님께선 여러 질문을 듣고 계시다 갑자기 우리에게 물으셨다.



“여러분은 황새가 천연기념물 몇 호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선 말씀하시길 “황새는 천연기념물 199호입니다. 현재 멸종위기종이지요.” “같은 황새목에 속한 백로와 왜가리는 먹이 사냥할 때 십중팔구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황새는 10번 중 3~4번만 성공합니다. 황새가 이 땅에서 사라졌던 이유는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냥실력이 좋지 못한 황새는 먹이가 지천으로 널려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순간 멍해졌다. 웬지 모를 죄책감에 팬스레 목사님께 죄송했다. “황새는 다시 이 땅에 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선 “그럼요,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황새 권역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안도감이 들었다. “목사님, 오늘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황새의 ‘비상’에 오늘 하루 보탬이 되겠습니다.”



2. 농촌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

운이 좋은 날이었다. 마침 자매결연 학교에서 농어촌 체험을 오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출발해 어느덧 마을회관으로 도착해 보니 장터 준비가 한창이었고, 심지어 사물놀이 예행연습도 진행 중이었다. 우리가 장터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광버스 두 대가 마을회관 앞에 멈춰 섰다. 초등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 학교 관계자 분들이 삼삼오오 장터로 모였다.

우리도 목사님을 도와 ‘양파즙’ 판매에 열을 올렸다. 장터에서 봤던 광경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격이었다. 솔직히 그리 값싼 가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진열된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목사님은 “이곳 황새마을은 관행 농업을 하지 않아요.” “친환경 또는 유기농업으로 재배하지요.” “예전 관행 농업 시절엔 한 포장 내에서 아무리 농약을 치고 키워봤자 2,000원 밖에 별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그마저도 제대로 팔지 못하면, 헐값에 판매해야 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 유기농업으로 재배하고, 마을 내에 가공장을 세워서 저장성이 떨어진 품목들은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하죠. 이 양파즙처럼요.” 유기농업 기사를 준비하는 나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내가 배우는 이론을 실제로 경험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또한 원예생명공학전공인 우리에게 희망

의 메시지인 셈이었다. 농어촌은 도태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 진화하고 있었다.

3. 우리가 전하는 기쁨의 메시지

장터가 끝난 후 점심시간이 되어 시골의 온정이 느껴지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고구마를 캐러 밭으로 나갔다. 농촌을 체험하러 온 초등학생들과 부모님들도 우르르 몰려왔다.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고구마 캐는 법을 설명하고 지도한 후 마을 어르신들께 헤드릴 염색과 포푸리 만들기, 꽃꽂이를 준비하러 마을회관으로 내려갔다.

마을에 소문이 났는지 벌써 할머니들은 기대가 크셨다. “어이 학생들~ 미용사 선생이 누구 신겨?” “내일 시내에 중요한 자리 가야 허는데 잘 좀 부탁드려유~” 벌써 들뜨신 할머니들을 뵈고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용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팀장인 전OO 밖에 없었다. 그래서 팀장은 OO이를 보조로 하여 염색을 진행했고, 우리는 어르신들과 꽃꽂이와 포푸리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꽃꽂이는 평소 학과 전공수업에서 장식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지라 수월한 부분이였다. 우리는 능숙하게 물에 적신 오아시스를 플라스틱 화분에 넣고 장식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들~ 꽃을 먼저 꽃을 때에는 큰 꽃 먼저 중앙 또는 그 근방에 배치한 후, 작은 순서대로 꽃으시면 됩니다.”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들은 너도나도 꽃을 찾아 꽃기 시작했다.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수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꽃꽂이 옆에선 포푸리 만들기가 한창이었다. 각 가정에 방향제로 쓸 수 있도록 로즈마리 잎을 말려서 가져왔다. 역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었다.

4. 20년 뒤의 너에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을회관에서 뒷정리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찾아오셨다. 단체 사진을 목사님께서 찍어주시고 우리는 교회로 이동했다. “오늘 우리 황새마을에 오시고 어떠셨어요?” 나는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농업에 관련된 체계와 마을 사람들의 참여의식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목사님은 “그렇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 꿈을 꾸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조화를 이루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꿈포유 황새마을’ 아닙니까? 허허”

“목사님, 20년 뒤에도 그 꿈이 변함없는 황새마을이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엔 없지만, 20년 뒤 저 하늘에 날고 있을 황새를 생각하며 저희도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목사님과 마을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한 뒤 우리는 벼가 무르익은 벌판을 걸으며 황새마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재능기부 실천 후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황새마을이 우리를 도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눔의 미학',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 교훈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꿈포유 황새마을에 찾아갈 계획이다. 20년 뒤 너에게 말할 수 있도록 황새의 비상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송성자

단체부문 장려상 -
KT IT 서포터즈 경기북부팀

반딧불마을 어르신들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KT IT 서포터즈 경기북부팀

http://www.itsupporters.com/ap/info/its_intro.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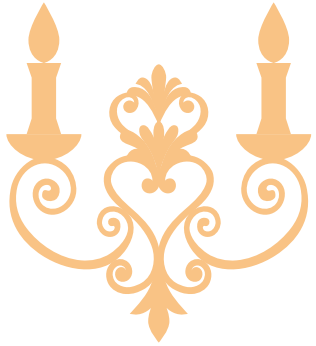
설립일 2007. 02. 21.

대표자 광희성

회원수 200명

KT IT서포터즈는 국민의 IT활용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대한민국을 디지털 지식강국으로 선도해 가기 위해 KT가 운영하는 무료봉사단체입니다.





부지런히 손사래를 치며 빗줄기를 건너내던 와이퍼의 힘찬 움직임도 점점 더 굽어지는 빗줄기 앞에서는 힘에 부치는 듯합니다. 출발한 지 한 시간 반, 어느 때 같으면 벌써 마을에 도착해야 할 시간 이건만 이제 겨우 설악IC라는 이정표가 빗줄기 사이로 간신히 보입니다. 그래도 넉넉히 시간을 잡고 출발한 덕분에 약속한 시간 안에는 도착할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깊푸른 잣나무 숲 빛깔을 그대로 머금은 계곡의 물살이 힘찬 물보라를 만들어 흐르는 농로를 지나니 붉은 벽돌의 마을회관 2층 교육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둘러 올라가는 계단참으로 낮익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꼴찌인 듯합니다. 늘 만나는 분들인데도 오늘은 무슨 이야기로 저렇게 즐거우신지,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반가운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에 우리도 어느새 거울처럼 같은 표정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각자 포스팅한 블로그도 함께 살펴보고 어플로 블로그 관리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사진촬영법도 연습해 보기로 한 날입니다. 지난주 숙제로 내어드



린 농산물 사진 찍기 과제를 잘 해 오셨는지 하는 기대로 벌써 미소가 떠오릅니다.

가평 반딧불마을, 이름 그대로 반딧불도 쉬어간다는 이 마을은 우리 사무실이 있는 일산에서 90

킬로를 달려와야 만나게 되는 산골마을입니다. 이곳과 우리 팀이 인연을 맺은 것은 작년 봄, 도청의 지원으로 마을에 스마트기기로 교육장이 조성되면서 부터였습니다. 마을의 숙원이던 스마트정보화마을이 되었지만, 어느 시골마을처럼 주민 대부분이 예순이 넘는 노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터라 활용이 쉽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IT 교육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우리 팀이 교육 지원을 해드리기로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00여 가구 남짓인 마을은 어느 시골마을처럼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었지만, 전국 최초 스마트기기로 조성된 교육장을 갖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마을 소득 증대나 홍보에 활용하고 싶다는 의욕만큼은 무척 높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는 생소하기만 한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를 배운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도 꽤 있었지만, 사용법을 잘 몰라 전화 받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벨만 울리면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물어볼 데도 없고 젊은 사람한테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 또다시 물어봐야 하는 사정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찮던 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찾아가면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요.

그렇게 시작된 교육은 전화를 걸고 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보내기, 동영상 촬영하기까지 조금씩 스마트폰과 친해지는 시간들이 쌓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조해진



손은 터치가 잘 안될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는 비상수단으로 살짝 침을 묻히면 금세 인식된다는 비법(?)도 알려드리면서 점점 스마트폰에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육장에 갖춰진 태블릿 PC의 활용에도 도전하여 이 마을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 도시 사람들의 마을 체험 프로그램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마을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했지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아 해보면서 스마트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손쉬운 모드로 전환해서 자주 거는 가족 번호를 홈 화면에서 바로 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문자 입력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음성으로 문자를 보내는 기능을 알려 드렸더니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기뻐하시던 모습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몇 번이고 반복해드려야 하는 고된 과정을 순식간에 잊게 하였습니다. 셀카 찍는 방법을 배우고서는 이런저런 표정으로 소녀처럼 설레어 하며 사진을 찍으시던 할머니의 모습도 오랫동안 잊지 않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달간의 교육이 끝나고 마을 뒷산에 쌓인 눈이 조금씩 녹아갈 무렵, 전국 최초로 스마트마을로 지정된 이 마을 정보화교육장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마음이 설레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멋진 개소식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기로 하였습니다. 그날은 군수님과 행안부 차관님까지 마을을 방문하신다고 하니 그간 우리가 노력한 모습을 스마트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고, 마을 주민이 직접 스마트기기로 당일 행사를 촬영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생

중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촬영은 그 동안 가장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신 잣농장의 정씨 할아버지가 맡기로 했습니다.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열심히 물어보며 연습하신 노력 덕분에 행사 당일 태블릿 PC를 들고 행사장 여기저기를 촬영하며 내빈들과 인터뷰까지 하신 모습은 단연 주인공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스마트한 모습에 취재 나온 기자들까지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동안 주민들이 스마트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을 한눈에 보여주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조금씩 스마트기기에 익숙해져 가면서 저희도 마을을 찾는 일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요즘은 제법 이런저런 활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면, 눈 덮인 시골길을 부지런히 오가며 나누던 시간에 떠올리며 흐뭇한 추억으로 되새기고 있던 즈음 마을로부터 마을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 교육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다시 한 번 가평과 일산의 부지런한 행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던 고등학교 봉사단 학생들과 함께 블로그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접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농사짓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블로그에 사는 이야기와 숨결을 담아가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몇 주, 학생들과 농가가 멘토, 멘티가 되어 고심한 끝에 예쁜 이름과 이야기가 묻어있는 블로그가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네 개똥썩’, ‘옥희네 오디와 표고버섯’, ‘봉환이네 잣과 흑염소’, ‘민정이네 된장’, ‘점순이네 흑돼지와 부영재펜션’...

일하는 짬짬이 스마트폰에 담아온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쓴 것이 블로그를 통해 보이면 마치 새로운 세상에라도 온 양 기뻐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에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법 방문자도 늘어나 댓글을 다는 재미가 쏠쏠하던 즈음, 한번은 블로그를 보고 직접 와 보고 싶어 연락했다는 공중파 방송국 연락이 와서 마을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상의 끝에 아직은 방송에 나올 만큼 준비가 안되었다는 겸손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방송 촬영은 정중히 사양했지만, 인터넷 세상의 힘을 피부로 느낀 즐거운 사건이었지요.

그 동안 정보화센터 맞은편의 작은 폐교도 인물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교육한 고등학생 봉사자들이 폐교 벽을 예쁜 벽화로 꾸몄고, 흰 구두를 화분 삼아 꽃을 심어 장식한 담벼락은 이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양증맞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마을에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교마저 문을 닫아 폐교로 남겨진 이 공간이 올 여름 학생 봉사단들 덕분에 새로운 마을 명물로 탄생하게 되었고, 함께 만든 블로그와 함께 오랫동안 마을의 소중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뜨겁고 빗줄기 썩썩하던 2013년의 여름도 가평 잣나무 숲 너머로 사라지고, 하늘과 맞닿은 잣나무에서 민첩한 몸놀림으로 잣방울을 수확하시는 장씨 할아버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가을 하늘과 어우러집니다. 작년 봄 처음 배운 스마트폰으로 지금은 포스팅까지 하시는 어르신은 세월을 거꾸로 돌린 듯 젊어 보입니다.

주름살이 많아 사진 찍는 건 싫다고 하시면서도 사진 속에서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던 모습, 싱싱한 표고버섯과 속이 잘 영근 잣 사진을 보고 전화를 드렸



더니 아직도 고심해야 글이랑 사진을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익숙해져서 일하면서도 바로 스마트폰으로 포스팅하는 게 꿈이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짬짬이 표고랑 잣 수확 모습을 찍어두었다가 부지런히 블로그에 올리시는 모습이 얼마나 신통한지 모르겠습니다. 올리고 보면 맞춤법 틀린 것이 있다며 쑥스러워 하시지만, 가끔씩 들려주는 맞춤법 때문에 더 정감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늘 선한 주름으로 가득한 웃음을 전해주시는 장씨 할아버지, 요즘은 문자나 통화보다 댓글을 달아주는 게 더 반갑다는 어르신께 오늘은 댓글로 안부를 전해봅니다.

“잘 지내시죠? ‘과거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노인이고,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청춘이다’ 라는 글을 읽으니 어르신은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동안 저희가 가르쳐 드린 줄 알았더니 사실은 어르신께 청춘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청춘이신 어르신, 어르신은 청춘을 응원합니다.”





유재운

단체부문 장려상
충청북도 축산위생 연구소 제천지소

나는 수의사의 길을 가고 싶다



충청북도 축산위생 연구소 제천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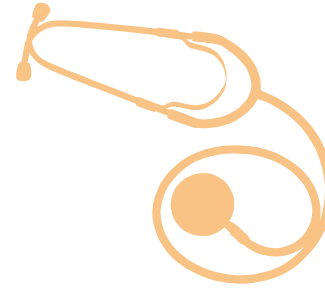
<http://cafe.daum.net/cbjehlove>

설립일 1989. 12.

대표자 지용현

회원수 12명

건강한 가축생산지원 및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에
주력하는 수의사 공공단체



2013년 4월초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돌던 어느 날, ‘따르르릉~’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행복하세요. 제천지소 유재운입니다.’ 하며 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직은 낯선 학생의 목소리였다. 고등학생이라면서 수의사가 정말로 되고 싶은 학생인데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실 수 있냐는 당돌한 전화에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맹랑한 녀석이 궁금하기도 해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날 저녁에 당장 만나고 싶다 해서 저녁에 약속을 정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그 학생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자그마한 키에 허스키 하지만 여성스러운 정도의 목소리, 중학생인 내 딸보다도 어릴 것 같은 학생인데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이 진심임을 직감했다. 우리의 첫 만남, 30년이 넘는 세월의 나이를 극복한 우리 둘의 첫 만남은 이렇듯이 강렬했다.

천연기념동물 방사 방송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최대 소망이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 특히 야생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원래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서 사람과 동물 간의 교감을 느끼게 되며 지금의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대뜸 주말에 우리 연구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하면서 수의사들이 하는 일을 체험하고 싶다고 허락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다.

때마침 우리 연구소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농촌 재능기부 활동으로 오지 순회 무료진료 외에 어떤 활동을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할 지 직원 수의사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던 터라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려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주자는 취지하에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였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우리 연구소 앞에서 그를 볼 수 있었다. 사무실 및 실험실 청소, 실험동물 관리, 천연기념동물 관리 등의 일들을 시켰는데, 정말 즐겁고 활기차게 마무리를 잘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당시 난 깨닫지 못했다.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이야... 학교로 돌아간 이 학생은 바로 자신과 꿈을 비슷하게 가진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또 과학부장 선생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어 급기야 과학부장 선생님이 우리 연구소를 찾아오시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과 동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아니 꼭 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어이쿠, 일이 너무 크게 벌어져 버렸네... 하지만 뭐 쉬고 싶은 주말이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정도 짬은 봉사해야지!’ 그렇게 시작된 재능기부의 활동들이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주말마다 3~4명의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겸하면서 생소한 수의사의 일상을 볼 수 있었고, 우리 연구소 수의사들은 재능기부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매주 토요일 찾아온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수의사의 직업관, 동물과 인간의 공존 관계, 풍성하고 다양한 생태계의 중요성,



환경보전을 통한 아름다운 자연유산의 대물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축산물 위생, 보건을 책임지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야생동물의 습성 및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

고, 연구소 수의사들이 각자 한 파트씩 분담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개 고등학교 남녀학생 20명이 참가하여 수의사가 아닌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기본적인 미생물 실험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 야생동물의 핸들링 등의 강의와 실습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 주었다. 참가한 학생 중 고 3인 학생 3명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수의학과에 지원한 성과를 거두었다. 참으로 보람차고 뜻 깊은 재능기부였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가끔씩 전화 연락이 오고 그때 돌봐줬던 야생동물들의 안부 등을 묻는 학생들이 있을 때면, 우리가 정말 훌륭하고 생각이 깊은 학생들을 수의사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에 뿌듯해져 온다. 또한 이러한 것이야 말로 교육여건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도농 복합도시에 우리가 학생들을 위하여 진정한 재능기부를 했다고 생각된다.

우리 연구소 수의사들의 정말 작은 재능기부로 인해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열정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명의 어린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불씨가 매주 토요일 지속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연구소 수의사들도 뜻 깊은 재능기부로 이어져 정기적인 워크숍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리 수의사들이 그들보다 더 감동받고 마음이 뿌듯한 것 같다. 너무나 기대된다. 청출어람한 학생들이 몇 년 뒤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 사회 곳곳을 누비며 밝은 세상을 만들게 될지 또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Evaluation Overview



⊕ 심사개요

134 심사후기

137 심사위원 소개



심사후기



알곡이 가득한 들녘에서 풍성한 가을걷이를 하는 농부의 마음이 이럴까. 오래간만에 마음이 충만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푸짐한 선물보따리를 한 아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일보가 주최한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 얘기가.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는 말 그대로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농촌에 기부한 활동에 대한 수기를 말한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의 중요성은 요즘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은 한국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야의 하나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와 각종 기술 발전 등에서 소외된 지역이 되었다. 어느 곳보다 재능나눔이 절실한 곳이다.

재능나눔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론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심사위원 자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심사를 위해 수기를 보면서 훈훈한 감동이 부끄러운 마음을 덮었다. 심사 결과를 떠나 수기를 보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공모전에 97명의 개인과 44개 단체가 수기를 보내왔다. 심사는 참신성과 작품성, 문학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모든 재능나눔 활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수상작으로 가려내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런 기준이 필요했다.

참신성은 아주 보편화된 아이템이 아닌 새롭고 희소가치가 있는 재능활동 내용을 말한다. 작품성은 재능나눔 활동 수기인 만큼 수기를 읽는 사람에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하는가가 주안점이다. 수기는 문학적인 글로 업무 보고서와는 다르다. 경험했던 일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사실을 통해 재능나눔 활동의 의미와 감동을 담는 것이다. 적합성은 재능나눔에 부합되는 활동인지가 포인트다. 막상 심사를 해보니 특히 적합성에 맞지 않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내용은 좋았지만 재능나눔과 거리가 있는 수기들이어서 안타까웠다. 재능나눔 활동을 단순한 봉사 활동과 구분하지 못하고 봉사 활동 수기를 보내기도 했다. 재능나눔은 자신의 남다른 재능을 나눈다는 점에서 별다른 재능이 요구되지 않는 봉사 활동과는 다르다. 봉사 활동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라면, 재능나눔은 삶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는 '+α(알파)'인 셈이다.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데 재능나눔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 심사과정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참신성, 작품성 등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품작들이다. 이번 공모자격은 '스마일재능뱅크에 회원가입 후 재능기부하기 등록 및 재능나눔 후기를 올린 개인 또는 단체'다. 스마일재능뱅크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격요건 미달인 것이다. 그런데 남다른 재능나눔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중요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아쉽지만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5명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부문에서 박영옥씨의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서 누가 제일 예쁘니?'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씨는 이 수기에서 발마사지 재능나눔 활동을 썼다. 박씨의 재능나눔이 주목 받은 것은 재능나눔을 통해 나눔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나눠준 본인도 달라지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씨는 재능나눔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자포자기 심정이던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했다. 재능나눔의 진정한 의미는 재능이 필요한 곳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재능을 나누는 사람도 업그레이드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호작용이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수기에서 밝힌 박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나처럼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그럼 인생의 삶이 바뀌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단체부문 대상은 ‘소외된 90% 농민을 위한 반자동 모종기’를 낸 KAIST I&TM에게 돌아갔다. 이 단체의 재능나눔 활동은 참신성에서 주목 받았다. 흔히 일상적으로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모종재배 일을 편리하게 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농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기도 하다. 농민들은 쪼그려 앉아 오랜 시간 동안 햇볕 아래에서 힘들게 모종재배를 하곤 한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전공을 십분 활용해 모종재배 일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적절하게 제시했다. 이들이 개발한 ‘모종 흠파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그래픽과 함께 곁들여 모종 흠파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응용할 수 있게 했다. 수기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재능을 나누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많은 작품들이 다양한 재능으로 농촌을 더욱 살 만 하게 한 활동들을 소개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농촌에 확산되고 있는 재능나눔 활동에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이 영양분 가득한 거름이 되고 있어 심사 기간 내내 뿌듯한 마음이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이 더욱 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심사위원장 안장원



2013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 심사위원 소개



안장원

⊕ 약력

대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경력

중앙일보 대구 주재기자
중앙일보 전국부 기자
現 중앙일보조인스랜드(중앙일보 부동산팀) 취재팀장(차장)



이한원

⊕ 약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졸업(석사)

⊕ 경력

중앙일보 편집국 피플위크엔부문 부장
중앙일보미디어플러스(JMplus) 콘텐츠 담당(부장)
現 중앙일보미디어플러스(JMplus) 부동산 데스크(부장)



정종명

⊕ 약력

1945년 경북 봉화 출생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1978년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사자의 춤> 당선
 현대문학·문학정신 등 문예지에서 10여년 근무
 경기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우교수,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부이사장, 한국문인협회 편집국장 역임
 제1회 동포문학상, 제45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現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외래교수
 現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및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재직

⊕ 주요저서

소설집 <오월에서 사월까지> <이명> <숨은 사랑> <의혹>
 장편소설 <인간의 숲> <아들 나라> <신국> <대상>
 산문집 <사색의 강변에 마주 앉아> 등



강병석

⊕ 약력

충남 홍성 출생
 1981년 월간문학신인상 시부문 수상
 1986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소설부문 당선
 조선일보 사원(5년), 동아일보 기자(20년), 매일건강신문 편집국장,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계간문에 편집장

⊕ 주요저서

시집 <녕쿨담장> <오월에 날아온 수상한 꽃가루> <사랑쌓기>
 소설집 <날말찾기> <어둠꽃>
 장편소설 <서있는 자의 꿈> <궁예> <누가 너를 시인이라 불렀는가>



우선덕

⊕ 약력

1976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78년 동 대학원 졸업
 1976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
 1955년 제 14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수상
 2회 손소희 문학상 수상
 2011년 제2회 (통영)김용익문학상 수상

⊕ 주요저서

장편소설 <가브리엘의 침대> <서서 자는 나무들>
 <살아있는 산> <이브수첩> <그대 떠나는 날앞이 지는가(전2권)>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대(전3권)>
 <어디로 가는가, 바람(전2권)> <슬픈 세시리아(전2권)>
 <하얀여자(전3권)> <여왕을 위하여(전3권)>
 <이 여자가 꿈꾸는 아침(전4권)>
 <그대는 없고 그대의 껍질(전3권)>
 <내 영혼의 푸른가시> <오래된 눈물(전2권)>
 소설집 <굿바이 정순씨> <옛 로망스> <겨울소나타>
 콩트집 <예고> <술이웬수로다>



Appendix



부록

농촌 재능기부 소개



미소 짓는 우리 농촌 재능기부가 만듭니다

농촌은 고향 부모님의 삶터·일터이자
도시민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농촌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해야
도시민이 행복합니다.

농촌에 도시민의 다양한 재능이 더해질 때
농업에 희망이 있고, 농촌에는 활력이 넘치며
대한민국은 행복해집니다.



Part 1 개념

농촌 재능기부란?

개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농촌에 기부하는 것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도농교감이 이루어지는 재능기부!

- 농촌 재능기부는 지역주민들과 의논하고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도농교감의 장이 되며,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재능기부!

- 재능기부 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나눔의 장입니다.

농촌에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재능기부!

- 당신의 소중한 재능기부가 농촌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어 농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범국민 운동이 된 재능기부!

- 스마일재능뱅크는 도시민의 재능과 이를 필요로 하는 농촌 마을을 연결해주는 만남의 장입니다.
- 농촌 재능기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입니다.

Part 2 나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재능기부는 누가 할까요?

- 재능과 지식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모두 다 가능합니다.
- 개인(일반인, 학생, 주부, 기술자, 자영업자, 교사, 공무원, 전문직 은퇴자 등)
- 단체(각종 동호회, 사회봉사단체, 기업체, 직능단체, 은퇴자 모임, 대학동아리 등)



어떤 재능이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할까요?

지역 개발	마을발전계획	마을계획컨설팅, 주민역량교육, 마을축제/체험기획, 전통문화보존,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주거/시설개선	주택수리, 장판/도배 교체, 전기/가스/수도 등 수리, 농업기계정비/가전제품 수리, 농기계 기술교육
	마을홍보/환경개선	마을조경/벽화그리기, 문패/우체통만들기, 마을홍보영상물/리플렛 제작, 마을로고만들기, 스토리텔링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기초교육, 인터넷 및 SNS 활용법, 휴대폰/스마트폰 사용법교육, 문서작성교육, 마을홈페이지관리
의료 복지 교육	의료/보건	무료검진 및 진료, 검안진료, 구강진료, 한방진료, 수지침/이혈
	노인/장애우돕기	응급처치교육, 물리치료, 소독/방역, 식품/영양관리, 위생교육
	건강/이미용	이미용, 메이크업, 스킨/발/스포츠/두피마사지, 레저스포츠/건강교실, 웃음치료
	문화예술지원	장수사진촬영, 공연(음악, 연극, 마술, 레크레이션 등), 디카 및 영상미디어 교육, 공예/공작, 취미교실
	아동보육	아동돌봄, 구연동화/독서교육, 미술심리치료, 예체능교육, 특수아동교육
	청소년지도	학습지도, 진로/진학/청소년상담, 방과후활동/방학캠프, 논술지도, 경제교육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한국요리강좌,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평생교육	생활외국어교육, 부모교육, 취업교육, 교양강좌, 웰다잉(Well-dying)
	농림업	재배/생산
수확후관리		안전품질관리, 저장, 가공, 조리, 포장
경영/마케팅	판매/제품홍보	전자상거래(온라인), 유통/생협, 포장디자인/제품로고제작, 제품광고, 수출안전품질관리, 저장, 가공, 조리, 포장
	금융/보험	자산/재테크상담, 예/적금관리, 부동산상담, 보험상담, 공과금납부대행
	법률/자문	법인설립, 생활법률상담, 상표/특허 출원, 창업상담/지원 행정/사무지원

Part 3 희망

농촌에 희망을 나누어요



농촌 마을을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들어 소득을 증대시킵니다

- 재능기부자의 전문적 조연과 마을 자원이 만나 그 지역만의 특산물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해 이를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도 창출하게 되어 농촌이 도시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할까요? 재능을 기부하는 바로 당신입니다.

농촌에 활력을 줍니다

- 도시민의 재능이 더해지면 침체되었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고 변화된 마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 자신감 회복을 통해 마을발전의 꿈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게 됩니다.
- 농촌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자부심과 애향심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한마음이 됩니다

- 빈번해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 작은 나눔이 큰 소통을 이끌어 밝고 희망찬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 농촌 재능기부로 우리 모두의 행복이 플러스 됩니다.

Part 4 기회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세요



귀농·귀촌의 꿈, 농촌 재능기부로 시작하세요!

- 복잡하고 바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농촌 재능기부로 농촌을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귀농·귀촌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재능기부를 통해 농촌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농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재능기부로 우리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인맥도 쌓고 현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귀농·귀촌 지역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나세요!

- 도시민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농촌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또 다른 사회적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 농촌사업을 이해하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농촌에서 다양한 분야의 직·간접 참여로 새로운 일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2막의 장이 열립니다

-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온 사회의 혜택,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 재능기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 누구에게나 봉사하는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Part 5 지원

농촌 재능기부! 정부가 지원합니다



재능기부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인합니다

- 재능기부자에게 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농촌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과 단체를 인증하여 자금조달, 정책사업지원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수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달의 우수 재능기부자를 선발하고 포상하는 등 우수한 재능기부자와 단체에게 다양한 수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매년 농촌 재능기부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활동 개인·단체를 시상합니다.

재능기부 단체 및 기업의 홍보를 지원합니다

-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에 단체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매년 농촌 재능기부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단체와 기업, 개인의 기부 활동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널리 알립니다.

필요 경비를 지원합니다

- 농촌 재능기부 공모사업을 실시해 재능기부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Part 6 사례

유명인사도
재능기부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금난새 예술감독과 함께하는 농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농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총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 선생님은 농촌 지역을 방문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재능기부를 통해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반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는 함께 어울려 연주하며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노후주택을 고쳐온 윤충열 교수

원광대 건축학과 윤충열 교수님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6년 전부터 전국 농촌을 찾아다니며 낡은 농가주택을 고쳐주는 건축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고쳐주는 집들은 농촌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주로 취약계층의 집입니다. 윤 교수님은 "우리가 농촌에 베풀어준 것은 조그마한 능력이지만 그것을 철저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윤 교수님은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다솜동지복지재단의 단장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함께 재단이 주관하는 '희망 가꾸기'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꿈과 미래! 농촌 재능기부가 만들어갑니다



사례1
벽화 재능기부

10년 전 충남 태안으로 귀촌한 박현 화백은 농촌 마을 벽화 그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마을 이야기가 담긴 벽화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가 붙어 지저분했던 전봇대에 그림을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희망을 담은 태안희망벽화도 그렸답니다. 세계 최대 벽화로 기네스 등재를 추진 중인 이 벽화에는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6만 7000개 손자국이 담겨있습니다. 박현 화백은 농촌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현지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벽화에 담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 생각만 해도 정겹지 않나요?



사례2
건강 관련 기부

11개 봉사단체로 이루어진 '강화 나눔 연합 봉사단'은 강화군 송해면 상도2리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마사지, 이미용, 음악 치료, 가정 방문 상담, 노인 심리 치료, 웃음치료, 우리 춤 공연, 청력검사, 약속 치료, 효소 나눔 등 다양한 건강 나눔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가정 도배 재능기부도 병행 실시하는 등 찾아 가는 토털 재능기부를 실시하여 노인과 장애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례3
영어캠프 기부

홍익대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교환학생들은 학교 주변 10km 이내에 학원도 공부방도 없는 깊은 산골에 위치한 홍천 좌운분교 아이들을 위해 영어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농촌의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선물하였답니다. 호기심 어린 아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빛났을까요?



사례4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부

국립민속박물관은 봉화군의 닭살마을, 의성군 사촌마을, 태안군 원정리 별주부마을, 서천군 동산리 동자북마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부리수통마을 등과 연계하여 초등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1박 2일 민속마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잘 보존되어 있는 고택과 전통문화를 도시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례6
손글씨 기부

윤희경 선생님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중년이 넘으신 시골 아주머니들에게 <예쁜 손글씨 POP 과정> 수업을 하였습니다. 많은 아주머니들이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문화생활이 그리웠을까요? 과정이 모두 끝날 무렵 아주머니들은 저마다 멋지고 의미 있는 작품들을 완성했습니다. 재능기부! 행복을 나누는 첫 걸음입니다.



사례5
지역개발 재능기부

서울시내 대학 연합 동아리 '꿈꾸는 빛'은 201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서신초등학교 학생 40여명과 함께 타일 벽화작업 및 교육 프로그램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이 시작한 나눔의 출발은 미비했을지 모르나, 이제 그들은 한 단계 높이 올라 다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면 그곳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처럼 바뀌 없는 자동차가 달리는 세상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쾌한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라봅니다.



사례7
문화공연 재능기부

(사)백토문화예술원 회원들은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부부사진, 가족 사진, 돌 사진 등을 촬영하고 아·미용, 웃음 치료, 각종 마사지 및 목공예로 마을 보건소 현판을 제작하여 기증하고 효도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동떨어져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이들의 봉사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Part 7 방법

스마일재능뱅크란?

스마일재능뱅크에서 시작하세요

스마일재능뱅크는 재능을 기부하려는 자와 기부 받으려는 자를 이어주는 만남과 나눔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 재능기부의 첫걸음!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 회원가입으로 시작하세요!



스마일재능뱅크 가입

(www.smilebank.kr) 어렵지 않아요~

01 스마일재능뱅크 회원가입

스마일재능뱅크 회원등록

농촌에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 후 스마일재능뱅크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02 재능기부 신청

재능기부 신청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재능기부하기' 신청을 합니다. 신청시 재능기부형태(개인과 단체 여부), 희망지역(전국, 도, 시군 단위까지 선택 가능), 분야를 등록해주세요.

03 재능기부 요청마을 정보확인·선택

요청마을 찾기

재능기부참여 > 요청마을찾기 메뉴에서 요청 마을의 목록과 마을 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선택합니다.

04 재능기부 하러 가기

재능기부 활동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매칭된 마을과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재능기부를 실천하러 농촌 마을에 찾아갑니다.

05 재능기부 체험나누기

재능기부 후기 올리기

농촌 재능기부 활동 내용을 커뮤니티 > 재능기부 후기 메뉴에 올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능을 농촌에 기부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습득한 다양한 기술과 재능이 있습니다. 생업에서 배운 전기·목공·미용·사진 재능 등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터득한 경영·마케팅·유통·가공 노하우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이 더해지면 농업인이 행복하고 농촌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재능기부로 농촌의 잠재력이 커지게 되고, 그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공동체가 다져져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훈훈한 재능기부! 당신도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스마일재능뱅크'를 클릭하세요.



재능이 모이면 ★꿈이 됩니다.

